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607-14

#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 김만덕기념사업회 · 김만덕기념관



발 간 등 록 번 호
-------------

79-6500000-000607-14
----------------------

#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 김만덕기념사업회 · 김만덕기념관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7월

(사)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범위 .....	2
1) 공간적 범위 .....	2
2) 내용적 범위 .....	2
3) 연구기간 .....	2
3. 연구 방법 .....	2
II. 김만덕 출생지 관련 문헌자료 분석 .....	4
1. 김만덕 관련 사료 분석 .....	4
1) 김만덕 당대 사료 내용 .....	4
2) 김만덕 후대 사료 내용 .....	16
3) 사료 분석 결과 .....	21
2. 김만덕 관련 문학작품 분석 .....	24
1) 전기문 .....	24
2) 소설 .....	26
3) 기타 문헌 .....	29
4) 문학작품 분석 결과 .....	30
III. 김만덕 출생지 관련 묘비 현황 분석 .....	35
1. 김만덕 가계 묘비 .....	35
1) 김웅열 .....	35
2) 김만석 .....	41
3) 김만덕 .....	44

2. 갑인년(1794) 의연자 묘비 .....	47
1) 고한조 .....	47
2) 홍삼필 .....	51
3. 의녀(義女) 호칭 사례 묘비 - 홍윤애(洪允愛) .....	56
 <b>IV. 김만덕 가계도 분석 .....</b>	<b>60</b>
1. 김해김씨 좌정승공과 후찬계 가계도 분석 .....	60
1) 김응열 원비(原碑)에 나타난 가계도 현황 .....	60
2) 문학작품에 나타난 김만덕 가계도 현황 .....	61
3) 김만덕 가계도 분석 결과 .....	63
2. 김해김씨 좌정승공과 후찬계 족보 분석 .....	64
3. 김만덕 가계 후손 심층면담 결과 .....	66
1) 심층면담 개요 .....	66
2) 주요 내용 .....	66
 <b>V. 결    론 .....</b>	<b>73</b>
1. 요약 .....	73
2. 시사점 .....	82
 <b>참고문헌 .....</b>	<b>83</b>



## 표 목 차

〈표 1〉 김만덕 가문과 신분 내력 .....	22
〈표 2〉 김만덕 관련 작품 속 주요 특징 .....	31
〈표 3〉 작품 속 김만덕 출생지와 가족관계 .....	33
〈표 4〉 김만덕 가게 기록물의 주요 특징 .....	79
〈표 5〉 문학작품에 나타난 김만덕 가게의 주요 특징 .....	81

##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수행 체계도 .....	3
〈그림 2〉 김응열 원비(原碑)로 본 가게도 .....	61
〈그림 3〉 김태능의 「김만덕전」으로 본 김만덕 가게도 .....	62
〈그림 4〉 김봉옥의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으로 본 김만덕 가게도 .....	62
〈그림 5〉 정비석의 「濟州妓 萬德」으로 본 김만덕 가게도 .....	63
〈그림 6〉 족보로 본 김만덕 가게도 .....	65



# I. 서 론

## 1. 연구 목적

- 김만덕(1739~1812)은 조선 후기 영조·정조 때 제주 출신으로 본관은 김해 김씨이고, 2남 1녀의 가족구성원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현대에 들어와서 김만덕 연구자들은 채제공(조선 정조 때의 영의정)의 「만덕전」에 기초하여 김만덕의 행적을 짐작하고 있다.
- 채제공의 「만덕전」은 전기문인데, 실록에 기록된 역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이 전기문은 김만덕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김만덕의 가족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한편, 채제공의 「만덕전」을 근거 삼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주지역의 역사가들이 몇 편의 전기문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사료의 한계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역사소설의 성격이 짙은 편이다.
- 작품에 따라 김만덕의 가계와 신분, 상업활동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역사와 역사소설은 성격이 다르고, 전기문 또한 문학 작품이므로 역사와 전기문의 내용을 혼동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들어 김만덕의 행적을 기억하고 현양하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김만덕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집단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김만덕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역사와 허구를 구별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콘텐츠로 규정지으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 김만덕 가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부족한 관계로 출생지, 신분, 활약상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현대 제주 도민들은 김만덕의 출생지에 대한 궁금증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이 연구는 김만덕 관련 사료, 문학작품, 묘비문, 종친회 심층면담 등에 기초하여 김만덕의 출생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김만덕 관련 지역

### 2) 내용적 범위

- 김만덕 출생지 관련 문헌자료 분석
- 김만덕 가계 묘비 현황 분석
- 김만덕 가계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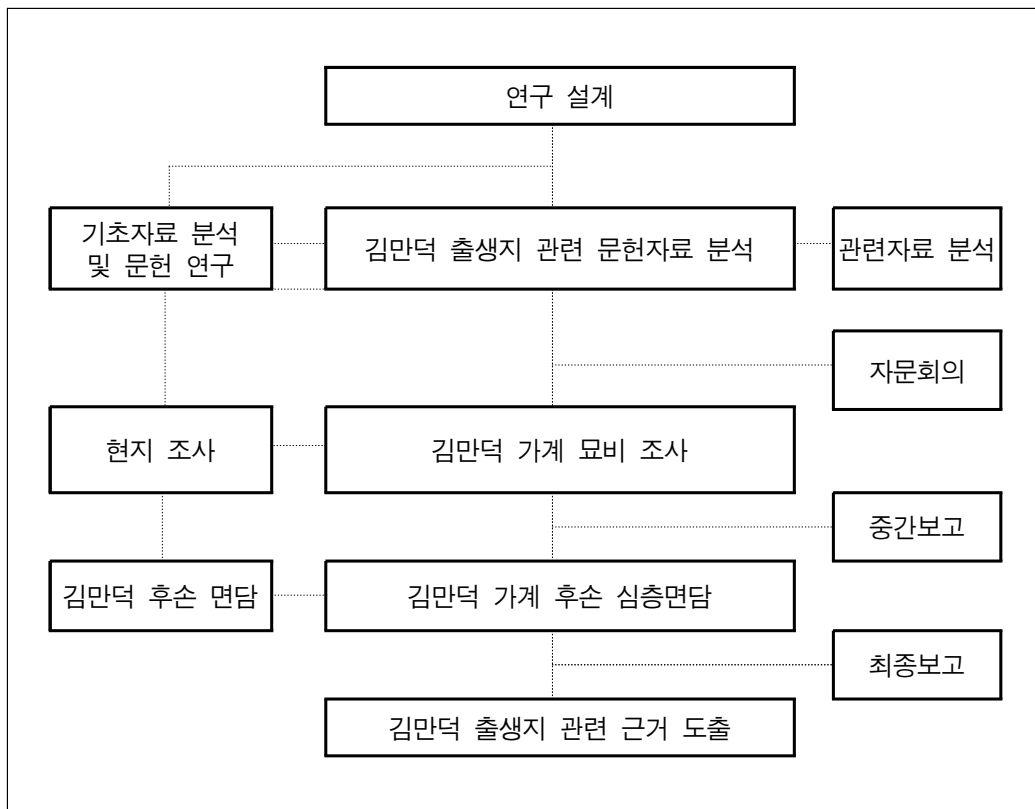
### 3) 연구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7월(4개월)

## 3. 연구 방법

- 김만덕 출생지 관련 문헌자료 분석
  - 김만덕 관련 사료
  - 김만덕 관련 문학작품

- 김만덕 가게 후손 심층면담
  -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 대상 면담
- 김만덕 가게 묘비 조사
  - 김응열(김만덕 부친) 묘비, 김만석(김만덕 오빠) 묘비, 김만덕 묘비
-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림 1〉 연구수행 체계도



## II. 김만덕 출생지 관련 문헌자료 분석

### 1. 김만덕 관련 사료 분석

- 김만덕 관련 사료는 김만덕이 생존했던 당대(1739~1812)와 후대(1812년 사후)의 기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사적 가치와 신빙성이 있는 1차 사료에 국한해서 정리했다.

#### 1) 김만덕 당대 사료 내용

- 김만덕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만덕 생존 당시의 사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김만덕의 출생지가 기록된 내용 중심으로 원문을 인용하였다.

#### (1)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20년(1796) 11월 25일조

[25일<sup>1)</sup> 제주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沿路)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丙寅 濟州妓萬德 散施貨財賑活饑民 牧使啓問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 20년(1796) 11월 24일조, 25일조, 28일조

□ 정조 20년 11월 24일

---

1) 25일 : 병인(丙寅)일. 1796년(정조 20) 11월 25일.



[채제공이 말하길, “탐라의 기녀(김만덕)가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하였는데,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면천(免賤)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심한 추위를 만나 이 집 저 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덕이 신을 찾아와서 울며 호소하는데, 그녀가 비록 천류이지만 그 의가 매우 높고 그 정이 매우 측은하므로, 유사(有司)에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탐라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가엾게 여기는 것이 타도보다 더욱 각별하다. 그녀는 한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데 힘을 썼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또한 목록하지 않아 이미 서울에 올라온 후에 어찌 도로에서 지내며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머물렀다가 봄이 온 후에 금강산으로 내려 보내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뱃길로 본향(제주도)에 떠나보냄으로써, (만덕의 뜻대로) 이루지 못한 일이 없게끔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

이병모가 아뢰길, “신은 비변사에서 이번에 보고한 일 때문에 황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일은 미세한 일에 불과하다. 대신들이 재상의 시사(時事)로써 들어와 보고하는 것은 전후의 어떤 시한(時限)도 거론하지 말라. 경들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물러갈 것을 명하였다.]

[濟恭曰 耽羅妓 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纔上來而適值劇寒 彷徨旅邸 來見臣泣訴 渠雖賤類 其義可尙 其情可憫 分付有司 另加顧恤 似好矣 上曰 耽羅人之朝家軫恤 視他道尤別 渠以一賤妓 出義捐財 助賑窮民 已極可嘉 而其所願 亦不碌碌 既已上來之後 何可使呼飢道路 自備局更問于渠 如欲留開春後下送金剛山 使得觀玩後給糧資 津送本鄉 以示無物不遂之意可也 秉模曰 臣於備堂現告事 不勝惶悚矣 上曰 本事不過微細 大臣之以卿宰時事入現告 勿論前後何限 卿其安心可也 仍命退]

□ 정조 20년 11월 25일

[김계락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어 말하길, “하교하심에 따라 제주 기생 만덕의 거처에 오늘 한 달 간 먹을 양식과 비용으로 쌀 1석과 금전 5냥을 제급(題給)<sup>2)</sup>하는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 임금께서 전교하기를, “알았다. 쌓인 재산을 널리 베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니,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소원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심한 추위를 만나 금강산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의기는 옛날의 열협(烈俠)<sup>3)</sup>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지급하여라. 곧바로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 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이정규가 내의원 도제조로서 제조의 뜻을 아뢰어 말하길, “진휼청에서 제주 기생 만덕에게 지금 한 달 간 먹을 양식과 비용으로 쌀과 돈을 제급한 일을 기록한 비지(批旨)<sup>4)</sup> 내에 “알았다.” 쌓인 재산을 널리 베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니,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소원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심한 추위를 만나 금강산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의기는 옛날의 열협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다. 봄이 오면 양식을 지급하여라. 곧바로 내의원 차비대령 행수의녀에 충원시켜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 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하교에 의하여 “제주의 비 만덕을 차비대령 행수의녀를 가설하여 충원 차임케 할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 임금께서 전교하시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2)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판결이나 지령을 써서 지급하다.

3)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강하다.

4)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하답이다.

[金啓洛以賑恤廳言啓曰 衣下教 濟州妓生萬德處 今朔糧資 米一石 錢五兩 題給之意敢啓 傳曰知道 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之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值劇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 差備待令 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可也]

[李鼎揆以內醫院都提調 提調意啓曰 賑恤廳濟州妓生萬德 今朔糧資米錢題給事草記批旨內 知道 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之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值劇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可也 事命下矣 依下教 濟州婢萬德 差備待令行首醫女 加設充差之意敢啓 傳曰 知道]

## □ 정조 20년 11월 28일

[만덕전 셋을 임금께 올렸는데, 그 가운데 권지승문원 부정자 서준보(徐俊輔)<sup>5)</sup>의 것이다. 정조 19년 갑인년에 탐라에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음을 보고하여 왔다. 임금께서 명을 내려 창고를 열고 제주에 가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하였다. 이에 국고에서 돈을 내고 연해안 지역에서 곡식을 내니 그 수가 모두 수만이 되었고, 구휼선이 바다에 떴다. 향을 내리어 바다에 제사를 지내니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아니하여 많은 배들이 평온하게 바다를 건너 오고갔다. 아! 다음해인 을묘년에 또 굶주림을 보고하니, 한 번 갑인년의 예보다 더하여 자해를 베풀었다. 그런데도 섬의 백성들은 모두 복讎을 바라보며 (구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수(稽首)<sup>6)</sup>하며, 나라가 흉년이 든 고통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만덕이란 자가 있었는데, 제주의 관비였다. 어려서부터 척당(倜儻)하여<sup>7)</sup> 장부의 뜻이 있었다. 비록 노

5) 1770년(영조 46)~1856년(철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치수(稹秀), 호는 죽파(竹坡). 1790년(정조 14) 진사시에 장원하였고, 1794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조선 순조·헌종·철종 때의 문신이다.

6) 구배(九拜)의 하나.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하는 절이다.

7) 뜻이 크고 기개가 있다는 뜻이다.

닐며 천하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나 몸가짐과 일처리를 함에 왕왕 출입하는 뜻이 있어(명분을 가지고 처신하여) 제주의 관리들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재물에 밝았고 의로움에 돈독하여 사람이 급한 상황에 있으면 천금을 티끌 같이 내어 놓았다. 항상 작은 섬에 갇혀 있어 그 뛰어남을 펼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

[萬德傳 三 上, 權知承文院副正字 徐俊輔 上之十有九年 甲寅 耽羅告飢 上命發倉往哺之 於是錢出於帑 粟出於沿 厥數皆萬萬 方舟之汎也 降香祭海 海波不揚 千櫓穩涉 如往而復 粵翌年乙卯又告飢 一甲寅之例而加之以慈恩 一島黎庶 咸北望稽首 不知荒年之苦也 時有萬德者 州之婢也 少倜儻有丈夫志 雖賤娼乎遊 持身處事 往往出入意 官于州者 亦未嘗蔑之 鏡於財而篤於義 見人急 芥捐千金 常恨局於彈丸 莫之展其奇]

### (3) 『일성록(日省錄)』, 정조 20년(1796) 11월 24일조, 25일조

#### □ 정조 20년 11월 24일

[채제공이 말하길, “탐라의 기녀(김만덕)가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하였는데,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을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濟恭曰 耽羅妓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 □ 정조 20년 11월 25일

[임금께서 명하시길, “제주의 기녀 만덕을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갈 때 연로에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여라.”]

[命 濟州妓萬德 充內醫院差備 待令行首醫女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 優給糧資]

(4) 채제공(蔡濟恭), 「만덕전(萬德傳)」, 『번암집(樊巖集)』 권 55

□ 「만덕전」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 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sup>8)</sup>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 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萬德傳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 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 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 庸奴耽羅丈夫 不迎夫]

(5) 이재채(李載采), 「만덕전(萬德傳)」, 『오원집(五園集)』

□ 「만덕전」

[만덕(萬德)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sup>9)</sup>의 과부이다. 머나먼 남해에 있는 제주 는 옛날의 탐라국(耽羅國)이다.]

萬德傳

[萬德 全羅道濟州牧寡女也 州在極南海中 古毛羅國也]

8) 기안(妓案) : 관아(官衙)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둔 책이다.

9) 제주목(濟州牧) : 조선시대에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셋으로 나누었는데, 한라산 북쪽을 제주목(濟州牧)이라 하고, 산 남쪽을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대정현(大靜縣), 동쪽을 정의현(旌義縣)이라 했다.

(6) 심노숭(沈魯崇), 「계섬전(桂織傳)」, 『효전산고(孝田散稿)』 권 7

□ 「계섬전」

[(…)지난해<sup>10)</sup>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흥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隸局)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 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學士)<sup>11)</sup>들로 하여금 그의 전(傳)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奎章閣)<sup>12)</sup>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郡)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볼 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桂織傳

[(…)前年耽羅妓萬德出粟助賑 朝廷驛召隸局婢首 遊金剛往來 乘驛官饋 命題敍傳 試閣中諸學士 此古所未有皆艷道之 嚮余在島中 聞德事頗祥 性凶悋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贓男子衣袴累百數 每纒纒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落有可觀 諸學士敍傳多稱之]

10) 지난해 : 1796년(정조 20). 병진년(丙辰年).

11) 학사(學士) : 학식 있는 사람. 학자.

12) 규장각(奎章閣) : 조선 정조(正祖) 원년(1776)에 설치하여 역대(歷代) 임금의 저술(著述)·필적(筆跡)·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보감(寶鑑) 및 정조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던 관아이다.

(7) 조수삼(趙秀三), 「만덕(萬德)」, 『추재집(秋齋集)』 권 7

□ 「만덕」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이 겹눈동자<sup>13)</sup>이었다.]

萬德

[萬德 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雙眼重瞳]

(8) 이희발(李義發), 「만덕전(萬德傳)」,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권 8

□ 「만덕전(萬德傳)」

[이 아래로 규장각(奎章閣)에서 강제(講製)할 때 교지(教旨)<sup>14)</sup>를 받들어 지어 올린 것이다.

만덕(萬德)이라는 자가 있으니 고을의 기생인데 나는 그 성씨(姓氏)를 잘 모르나 대개 이는 삼을나(三乙那)<sup>15)</sup>의 유손(遺孫)일 것이다. 용모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고, 성품이 가무(歌舞)를 좋아하지 않고, 홍불(紅拂)<sup>16)</sup>과 같이 아름답고 요야(妖冶)<sup>17)</sup>한 작태(作態)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에 촉(蜀)의 과부 청(淸)<sup>18)</sup>과도 비교할 만큼 의로운 일에 급히 나서고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니, 옛날

- 
- 13) 겹눈동자 : 중동(重瞳)과 같은 말이며 겹으로 된 눈동자를 뜻하는데,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순(舜) 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한다. (『史記』 「項羽本紀論」 吾聞之周生日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 14) 교지(教旨) :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
- 15) 삼을나(三乙那) : 흔히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
- 16) 홍불(紅拂) : 수당(隋唐) 시대의 여협(女俠) 장출진(張出塵)을 이르는 말이다. 수말의 권상(權相) 양소(楊素)의 시기(侍妓)로, 양소를 찾아온 이정(李靖)에게 반하여 함께 달아났다. 뒤에는 영웅을 알아보는 부녀자의 전형으로 쓰인다. (許時泉, 「寫風情」 他若有阮步兵觀人的眼兒 衛叔寶待人的面皮 我便效紅拂謹相隨)
- 17) 요야(妖冶) : 요염하고 아리따움, 또는 그런 여자.
- 18) 촉(蜀)의 과부 청(淸) : 여희청대(女懷淸臺)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 「貨殖傳」에, “파(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혈단(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렵할 수 없이 부유하였다.

의 소위(所謂) 여협(女俠)<sup>19)</sup>이라는 자와 같은 부류가 아니겠는가?

### 萬德傳

[此下 奎章閣講製時 奉教製進 有萬德者 州妓也 余未詳其姓氏 盖是三乙那之遺裔也 貌不揚 性不喜歌舞 不作紅拂佳冶之態 而貲擬蜀清 有急義好施 與古所謂女俠者流歟]

(9) 김희락(金熙洛),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奉教製進萬德傳)」, 『고식(故寔)』

#### □ 교지(教旨)를 받들어 만덕전(萬德傳)을 지어 올리다

[고을의 기생으로 만덕(萬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났다. 용모는 날리지 못하였고 노래나 춤도 잘 못하였으나 성격은 활달하고 협기(俠氣)가 있었으며, 재물(財物)은 촉(蜀)나라 청(淸)에게 비교되었다.]

### 奉教製進萬德傳

[州妓有萬德者 生某里某第 貌不揚 短歌舞 性濶狹 貲擬蜀淸]

(10) 이면승(李勉昇), 「만덕전(萬德傳)」, 『감은편(感恩編)』 권 3

#### □ 「만덕전(萬德傳)」

[만덕(萬德)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라(耽羅)의 기생으로서 성은 김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사(公私) 간에 천한 사람은 성씨도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냥 만덕이라는 이름만 불렀다. 본래는 양가집의 딸이었으나 십 여 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여의고 창가(娼家)<sup>20)</sup>에 고용되었다. 자색(姿色)<sup>21)</sup>이 있어 부(府)에 속한 기

---

청(淸)은 과부인데도, 그 가업을 잘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다른 이들이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했다. 진시황이 정부(貞婦)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하고 있다. (『漢書』「貨殖, 巴寡婦淸傳」巴寡婦淸 其先得丹穴 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也 能守其業 用財自衛 不見侵犯 秦始皇帝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

19) 여협(女俠) : 의협심이 있는 걸출한 여자.



생으로 뽑혔고, 기예(技藝)<sup>22)</sup>를 배울 때 무엇이든 다 잘 했다. 또한 성격이 활달하여 장한 기상이 있었다. 배를 만들고 다스리는 일에 능통하여 다른 곳의 쌀과 양곡을 사다가 점포를 차려 놓고 판매를 한 덕에 삿갓과 말갈기[駿]<sup>23)</sup>가 쌓여 돈이 많았고 풍족하였다.]

### 萬德傳

[萬德者 耽羅妓 金姓也 我國公私 賤不用姓 故以萬德名 本以良家女 十余歲失怙恃爲娼家傭賃 有姿色 仍選隸府妓 學技藝盡善性 又不拘 有丈夫氣 善治產造船 而貿遷米 設舖而販賣 簠駟積貲 頗饒]

## (11) 정약용(丁若鏞), 「중동변(重瞳辨)」,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 12

### □ 「중동변(重瞳辨)」

[제주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내어놓아 가난한 사람을 진휼(賑恤)<sup>24)</sup>했는데 금강산(金剛山) 보기를 청하므로 역마(驛馬)<sup>25)</sup>를 불러와서 한양(漢陽)에 이르게 했다. 만덕이 말하기를 ‘그 눈이 겹눈동자입니다.’고 하니 공경(公卿)<sup>26)</sup>이 서로 전하여 떠들썩하였다. 내가 그를 불러오게 하고는 문기를, “네 눈이 겹눈동자라고 하니, 이것이 있는가.” 하니, “그렇습니다.” 했다.

“무릇 궁실(宮室)·누대(樓臺)<sup>27)</sup>·초목(草木)·인물(人物)을 네가 보기는 한 개가 모두 두 개로 보이는가?”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너는 겹눈동자가 아니다.” 하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겹고 흰 동자가 조금도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겹눈동자라는 말이 마침내 유행하고 그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스스로 바보짓 하는 것이

20) 창가(娼家) : 창기(娼妓)의 집. 기루(妓樓).

21) 자색(姿色) : 여자의 얼굴과 맵시.

22) 기예(技藝) : 기술에 관한 재주와 솜씨.

23) 말갈기[駿] :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난 긴 털.

24) 진휼(賑恤) : 재물을 베풀어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

25) 역마(驛馬) : 역참에 대기시켜 두고 관용(官用)에 쓰던 말. 역말.

26) 공경(公卿) : 고관(高官)의 범칭.

27) 누대(樓臺) : 높고 큰 건축물의 범칭.

이와 같았다.

대저 동자가 겹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로써 이를 비쳐본다면 누대는 비쳐서 소누대(小樓臺)가 되고, 초목은 비쳐서 소초목(小草木)이 되니 그것이 작은 모양이 있는 것은 곧 이 물건을 보는 까닭인데 눈동자를 겹으로 있게 한다면 각각 한 가지 작은 모양으로 비쳐질 것이니 한 가지 물건이 두 개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알기 쉬운 이치이다. 즉 우순(虞舜)<sup>28)</sup>과 항적(項籍)<sup>29)</sup>의 눈도 또한 반드시 겹눈동자는 아닐 것이다. 과연 그들이 겹눈동자라면 물건을 보는 것이 어지럽고 뒤섞이어 숫자(數字)와 초목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니 한 사람의 폐인(廢人)<sup>30)</sup>이 될 뿐이다.]

### 重瞳辨

[濟州妓萬德 捐貲賑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 問汝目重瞳 有之乎 曰然 曰凡宮室樓臺草本人物 於汝視一皆成兩乎 曰不然 曰然則汝非重瞳矣 逼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照爲小樓臺 草本照爲小草木 其有小樣 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設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虞舜項籍之目 亦必非重瞳 令果重也 視物迷錯 不辨數目 一廢人矣]

(12) 정약용(丁若鏞),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題耽羅妓生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 14

28) 우순(虞舜) : 상고(上古)의 성군(聖君). 성은 요(姚), 이름은 중화(重華)이며, ‘虞’는 그의 조상이 봉(封)해진 나라 이름. 효성이 극진하였고, 요(堯) 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선양(禪讓)받아 포판(蒲阪)에 도읍하였으며, 남쪽을 순시(巡視)하다가 창오(蒼梧)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재위(在位) 18년.

29) 항적(項籍) : 진(秦) 말기 초(楚)의 장수. 자는 우(羽). 숙부 양(梁)과 함께 기병하여 진의 군사를 쳐서 함양(咸陽)을 불사르고 그 임금 자영(子嬰)을 죽인 뒤 자립하여 서초 패왕(西楚霸王)이 되었다.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과 친하 제패를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패하여 오강(烏江)에 투신자살하였다. 항우(項羽).

30) 폐인(廢人)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 □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摺紳大夫)<sup>31)</sup>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

[을묘년(乙卯年)<sup>32)</sup>에 탐라에 기근이 들어 만덕이 재물을 내놓아 이를 진휼하였다. 그 소원을 물으니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였다.

병진년(丙辰年)<sup>33)</sup> 가을에 탐라의 기생 만덕이 역마(驛馬)로 서울에 불러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左丞相)<sup>34)</sup> 채공(蔡公)<sup>35)</sup>이 그를 위해 소전(小傳)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sup>36)</sup>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것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

###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乙卯耽羅饑 萬德捐振之 詢其願 金剛山也 有聖旨令如願

丙辰秋 耽羅妓萬德 驛至京 越明年春 萬德回自金剛 將還其鄉 左丞相蔡公爲立小傳 叙述頗詳 余不贅 余論萬德 有三奇四稀 妓籍守寡一奇也 高貲樂施二奇也 海居樂山 三奇也 女而重瞳子 婢而被驛召 妓而令僧肩輿 絕島而受內殿寵錫 四稀也 嗟以一眇小女子 負此三奇四稀 又一大奇也]

31) 진신대부(摺紳大夫) : ‘진신(摺紳)’은 흘(笏)을 큰 띠에 꿰는다는 뜻. 곧 선비나 사대부를 가리킨다.

32)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33)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34) 좌승상(左丞相) : ‘승상’은 임금을 보좌하는 최고의 벼슬. 곧 좌의정.

35) 채공(蔡公) : 채제공(蔡濟恭).

36) 내전(內殿) : 왕비(王妃)의 존칭.

(13) 이가환(李家煥), 「만덕을 탐라로 보내니 돌아갔다(送萬德歸耽羅)」, 『금대시문초(錦帶詩文鈔)』

□ 만덕(萬德)을 보내니 탐라(耽羅)로 돌아갔다

[만덕(萬德)은 탐라(耽羅)의 과부니, 을묘년(乙卯年)<sup>37)</sup> 큰 기근에 쌀을 사들여  
서 주린 사람들을 진휼(賑恤)하였다.

만덕은 제주의 훌륭한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구료.]

送萬德還耽羅

[萬德 耽羅寡婦 乙卯大饑 糴米賑飢 (중략) 萬德瀛洲之奇女 六十顏如四十許]

## 2) 김만덕 후대 사료 내용

■ 김만덕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만덕 사후에 기록된 사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김만덕 출생지가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원문을 인용하였다.

(1) 이원조(1841년), 「의기 만덕」, 『탐라지초본』 권 2, 제주, 인물

□ 「의기 만덕」

[의기 만덕 : 양가(良家)의 딸로 기적(妓籍)에 이름을 기탁하였다. 몸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1794) 큰 흉년을 당하여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방출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는 이 사실을 듣고 가상히 여겨 수령에게 명하여 소원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그녀는 왕도(王都)와 금강산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말을 지급하여 서울로 들어오게 하

37) 을묘년(乙卯年) : 1795년(정조 19).

였다. 곧 내의녀(內醫女)의 벼슬을 붙여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불러보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도로 서울에 이르렀다가 제주로 돌아왔다. 상국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었다.]

[義妓 萬德：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治累千金 當甲寅大歉 盡散其財 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問所願 願一見王都及金剛山 命給馬上送 入京即付內醫女 招見差備門外 賞賜甚厚 乘駟傳食 往遊金剛 還到京歸本土 蔡相國濟恭 作傳以遺之]

## (2) 유재건(劉在建), 「만덕(萬德)」,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 □ 「만덕(萬德)」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 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 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재화를 늘리는 데에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거나 했다. 그런지 몇 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 萬德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 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 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 庸奴耽羅丈夫 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 (3) 저자 미상(1902), 「의기만덕(義妓萬德)」, 『탐라지(耽羅誌)」, 일본 동경대학 소장본, 권 1

□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의 딸로서 기적(妓籍)에 올랐는데, 생신(生身)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義妓萬德

[義妓萬德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 (4) 김석익(1915), 「행수 김만덕」, 『탐라기년』 권 3

□ 「행수 김만덕」

[행수 김만덕(金萬德)은 본주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어 가난하고 고생했으나 자라서는 곱고 아름다웠다. 교방에 적을 의탁했는데 옷을 줄이고, 음식을 덜어 재산이 많아졌다. 이 해 봄 도내 큰 기근이 드니 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운반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목사가 이를 어질게 여겨 보고하였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음에 대답하여 말하길 “번화한 서울과 금강산의 절경을 보고자 할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특별으로 지나는 고을마다 잘 대접하도록 하였다. 내의녀로 삼아 변방의 편익을 주어 은총을 베풀고, 역마를 주어 금강산을 두루 돌아보도록 하였다. 또 그가 돌아올 때는 조정의 경대부들 모두 전별하는 글(臚章)을 지어 돌아가는 길을 빛내어 주었다. 만덕은 칠순이나 용모가 보살을 방불케 하였으며, 눈은 쌍겹눈으로 환히 맑았다. 정승 채제공(蔡濟恭)<sup>38</sup>이 만덕을 위하여 전기를 썼다.]

38) 채제공(蔡濟恭, 1720~1799) : 본관 평강(平康). 자 백규(伯規). 호 번암(樊巖)·번옹(樊翁). 시호 문숙(文肅). 1735년(영조 11) 15세에 향시에 급제한 후 1743년에 문과 정시를 통해 승문원에 들어갔다. 여러 관직을 거쳐 1788년 정조의 특명에 의해 우의정이 되었으며, 2년 후 좌의정으로 승진하면서 3년간 혼자 정승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였다. 문집으로 『번암집』이 있다.

### 行首金萬德

[行首金萬德 本州良家女也 幼而失恃零丁貧苦 長而靡蔓 托跡教坊 縮衣損食 貲產致大 是年春 島內大飢 萬德傾財運穀 濟活甚衆 牧使賢之以聞 王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 金剛之勝而已 特命縣次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給舖馬 遍覽金剛山 及其還 朝之卿大夫 皆贐章侈行 七旬顏髮彷彿仙釋 重瞳瑩徹 蔡相濟恭爲之立傳]

#### (5) 김두봉(1936), 「女子 中 特異한 人物」,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

##### □ 「女子 中 特異한 人物」

[慈善心이 豊富하고 貧民을 많이 救生한 行首 內醫女 金萬德 事實  
金萬德의 本은 金海라. 幼時에 父母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이, 苦生하고 자랐  
스나, 長성한 後, 더욱 의탁할 곳이 업섯다. 할 수 업시, 몸을 教坊에 의지하고,  
生活을 經營하나, 그러나, 勤儉과 節約을 爲主하야, 資産이 漸漸 致大하더니,]

#### (6) 담수계(1954), 「김만덕」, 『중보탐라지』, 인물, 의녀

##### □ 김만덕

[본주(本州)의 양가집 딸로서 어린 나이에 의지할 데를 잃어 빈곤이 막심하더  
니 자라서 교방(敎坊)<sup>39)</sup>에 적(籍)을 의탁하여 옷을 줄이고, 음식을 덜어 재산이  
커지게 되었다. 1795년(정조 19) 봄 섬 안에 크게 기근이 들었는데 만덕(萬德)이  
가산을 전부 내놓아 양곡을 사서 운반하여 빈민을 구제한 것이 매우 많았다.

목사가 기특히 여겨 아뢰니, 왕이 목사에게 명하여 그 소원을 아뢰게 하였다.  
만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함이 소원이라’ 하니, 왕이 특  
명을 내려 지나가는 길의 각 현(縣)에서 차례대로 음식을 제공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는 내의녀(內醫女)를 맡겼다. 왕이 만덕의 왼손을 붙들고 칭찬한  
후 변화한 서울을 다 구경시켜 주고 역마(鋪馬)를 주어 관찰사(道伯)로 하여금 금  
강산을 두루 보게 하였다. 여행을 마치고 조정에 돌아오니 경대부(卿大夫)들이

39) 교방(敎坊) : 고려, 조선시대 기녀(妓女)를 중심으로 가무(歌舞)를 관장하던 기관을 말한다.

모두 이별의 시문(詩文)을 주고, 영의정(領議政) 채제공(蔡濟恭)이 다음과 같이 전기를 썼다.

“사람됨이 부대(富大)하고 키가 크다. 말은 유순하며 외형은 후덕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중둥(重腫)이 밝고 맑았다. 70 늙은 나이에 얼굴과 머리가 신선이나 부처를 방불케 한다.”

### 이가환(李家煥)의 송별시(送別詩)

[만덕은 제주의 기특한 여인]

60인데 얼굴은 마치 40 쯤  
천금을 던져 쌀을 사다 백성을 구했네  
한 바다를 건너 궁궐의 임금을 뵈었네  
다만 한번 금강산 보기를 원했는데  
산은 동북쪽 안개 속 있고  
상감은 고개 끄덕이고 날랜 역마 내리니  
천리를 번쩍하고 강원도로 옮겨 갔네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니 마음과 눈이 장관이었고  
표연히 손 흔들며 바닷가 외진 곳 돌아왔네.  
탐라는 먼 고·량·부 때부터  
여자가 서울 올라가 구경한 건 이 때가 처음이었네  
우레 소리 요란하게 목을 빼서 놀던 백조  
높은 바람 타고 오래 머물며 세상을 씻어주오  
인생에 이름을 낸 이런 일이  
여인이 품은 맑고 즐거움 어찌 헤아릴 것인가]

[本州良家女로서 幼년에 失恃하여 貧困이 莫甚하더니 及長에 敎坊에 托籍하여 縮衣損食하여 資産이 大致라. 正廟 19年 乙卯春에 島內가 大飢어늘 萬德이 家産을 盡散하고 糧穀을 質運하여 貧民을 救濟함이 甚多라. 牧使 奇히 하여 以聞하니, 王이 牧使에게 命하여 그 所願을 聞케 하였는데, 萬德이 對曰 王都와 金剛山



을 求景함이 所願이라 하니 王이 特命을 下하사 縣次로 續食케 하고 京城에 至한 後에는 內醫女에 充하다. 王이 萬德의 左手를 執하고 稱讚한 後 京華를 다 求景케 하고 舖馬를 給하여 道伯으로 하여금 金剛山을 遍覽케 하니라. 旅行을 마치고 還朝하니 卿大夫가 다 別章을 주고 領議政 蔡濟恭이 立傳하다. 爲人이 居이 富大하고 키가 長大하여 言語가 柔順하며 外形에 厚德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重瞳이 瑩徹하여 老年七旬에 顔髮이 仙釋에 彷彿하다.]

[李家煥送別詩 萬德瀛州之奇女 60顔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額肯賜飛驒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喧遊鵲舉 長留高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清台安足數]

### 3) 사료 분석 결과

#### (1) 김만덕 당대 사료의 특징

- 김만덕 관련 당대 사료에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정조실록(正朝實錄)』 등 관찬사료와 채제공(蔡濟恭)의 「만덕전(萬德傳)」, 규장각 초계문신(抄啓文臣)들의 각종 전기문이 있다.
  - 박제가(朴齊家), 정약옹(丁若鏞), 이가환(李家煥) 등 당대의 실학자들이 김만덕의 선행을 기리는 한시를 남겼다.
- 김만덕 관련 사료 중 전기류가 많은 것은 정조 임금이 김만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정조는 특별히 규장각 관료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교지를 내려 김만덕의 전기문 작성을 지시했다.

#### (2) 김만덕 후대 사료의 특징

- 김만덕 관련 후대 사료에는 현종대 제주목사 이원조의 「의기 만덕(義妓萬德)」,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의 저자 유재건의 「만덕(萬德)」, 저자 미상의 「의기 만덕(義妓萬德)」, 제주 유림 사학자 김석익의 「행수 김만덕(行首金萬德)」, 일제 강점기 향토사학자 김두봉의 「女子 中 特異한 人物」, 『증보탐라지』를 편찬한 담수계(淡水契)의 「김만덕(金萬德)」 등이 있다.

### (3) 김만덕의 출생지 기록 현황

- 김만덕 관련 사료에는 김만덕을 ‘탐라 여인’, ‘탐라의 기녀(기생)’, ‘제주 기생(기녀)’, ‘고을의 기생’, ‘제주의 관비’, ‘탐라의 과부’, ‘탐라에 사는 양가집 딸’, ‘제주의 양가집 딸’이라고 하여, 김만덕의 출생지가 ‘탐라’, ‘제주’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문헌자료 저자들은 김만덕이 제주 출신(구체적인 마을 이름은 없음)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 한편, 이재체의 「만덕전(萬德傳)」에는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의 과부라고 하여, 제주도 내 제주목 출신임을 밝히고 있다.

〈표 1〉 김만덕 가문과 신분 내력

내 용	전 거
· 양가집 딸 · 20여 세에 妓籍에서 이름을 없애고 양민으로 환원되다.	蔡濟恭 「만덕전」
· 본래는 양가집 딸	李勉昇 「만덕전」
· “저는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趙秀三 「만덕」
· 免賤하기도 원하지 않았다.	『承政院日記』 정조 20년 11월 24일
· 老妓 만덕은 나이가 늙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免賤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출륙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日省錄』 정조 20년 6월 6일
· 성은 김씨이며 耽羅에 사는 양가집 딸이다.	劉在建 「만덕」

내 용	전 거
· 行首 김만덕은 本州 良家の 딸이다.	金錫翼 「행수 김만덕」
· 金萬德의 본은 金海이다.	金斗奉 「여자 중 특이한 인물」
<p>〈요약〉</p> <p>김만덕은 김해가 본관인 김씨 가문의 양인(良人) 출신이고, 20대 초반에 免賤하였다. 만덕을 기녀 또는 천인 신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官妓라는 특정한 직역(職役)을 지녔던 그녀의 특징적인 생애 이력이 부각된 결과이다.</p> <p>따라서 양인 신분으로 환원된 뒤 만덕이 객주 상업을 할 때에도 그의 통칭은 기녀 때 이름인 만덕으로 불렸을 것이다.</p> <p>결국 조선 후기 강한 신분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인으로 환원되었지만 과거 기녀 직역을 수행했던 데서 비롯된 천한 신분이라는 자기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p>	

#### (4) 김만덕의 후손

- 김만덕은 한때 기생이었지만 남성에게 매어있지 않았다. 기녀 출신들은 향촌 사회 유력자들의 첩으로 들어가서 본처 못지않게 행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채제공의 전기문에 나온 바와 같이, 남성들을 자신의 객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고용하기는 했어도 남편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 이가환의 한시에 ‘과부(寡婦)’로 표현된 기록은 만덕이 상경했을 때의 나이가 58세이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 김만덕 묘비문을 보면 〈하늘의 도가 무심하여 애석하게도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양손(養孫) 시채(時采)가 동기(同氣)로부터 나와 능히 유지(遺志)를 좇으면서 영원히 향화(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 또한 다시 무엇을 한할 것인가?〉라고 하여, 김시채(김만덕의 오빠 김만석의 손자)가 양손으로서 대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 김만덕은 미혼으로 직계 후손이 없고, 오빠인 김만석의 후손으로 대를 이었다. 현재 김만덕의 유업은 김시채의 후손들로 이어지고 있다.

## 2. 김만덕 관련 문학작품 분석

- 김만덕의 출생지를 언급한 문학작품은 여러 편이 있는데, 김만덕의 출생지가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거나 기존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기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여기서는 문학작품 장르에 따라 전기문, 소설,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 1) 전기문

#### (1) 『金萬德傳』(金泰能,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 김태능의 『김만덕전』은 1971년 初版된 이후 1978년에 再版, 2000년에 三版이 발행됐다. 김만덕 출생지와 가족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덕은 영조 15년(1739년) 제주성 부근에 거주하던 김응열(金應悅)의 자녀 3남매 중의 외딸로 태어났는데,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달리 아름답고 귀여웠으므로 - 중략 -

만덕의 부모도 기근과 유행병으로 인하여 철모르는 어린 자녀 3남매를 남겨 놓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세상을 떠나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만덕은 일시에 부모가 구몰(俱沒)되어 버렸으므로, 아직 미거한 만석(萬碩)과 만재(萬才)와 더불어 3남매는 의지 의탁할 곳 없는 가엾은 천애무변고아(天涯無邊孤兒)의 신세가 되었다.

이때, 제주성내에 한 기녀(妓女)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귀여운 만덕 소녀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불쌍히 생각되어, 이 여아(女兒)를 자기집에 데려다가 잔심부름도 시키면서 양육하고 친딸 같이 사랑하였다. 짐작컨대 이 때 만석과 만재 두 형제는 친척집이나 아니면 동리 사람 집에 목동이나 시동으로 고용되어 나갔을 것이다. - 중략 -

이 시대에 사회제도는 기녀는 신분상으로 천민(賤民)인 하호(下戶)에 속했

으며, 이에 따라 기생의 딸은 박색이 아닌 이상 대개는 기생이 되는 것이 상례였다. - 중략 -

부득이 관청의 강요와 주위 사람들의 권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기적(妓籍)에 등록하는 것을 승낙하고 본의 아닌 기역(妓役)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중략 -

그는 우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절차상 관청에 비치된 기적(妓籍)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 중략 - ]

## (2)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김봉옥 편, 제주도, 1989)

- 이 전기문을 보면 김만덕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은 도입부에 해당하는 ‘만덕이 자라난 환경’에 묘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이다. 만덕은 영조 15년(1739년) 아버지 김응열(金應悅)과 어머니 고씨(高氏) 사이에서 제주성내에서 태어났다. 위로는 만석(萬碩), 만재(萬才) 두 오빠가 있었다. 선비 집안으로 증조부는 성순(性淳)이고, 조부는 영세(永世)로서 응선(應先), 응남(應男), 응신(應信), 응열(應悅) 4형제 분들이 있었다.

- 중략 -

이때, 만덕의 집안에도 불행이 닥쳐왔다. 정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월에는 어머니마저 호열자로 사망하였다. 당시 만석의 나이 23살, 만덕은 12살이었다. - 중략 -

만석은 백부의 도움으로 동네 부씨(夫氏)에게 장가 들어 어렵게 집안을 이어가고, 만재는 백부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덕은 한 기녀(妓女)의 집에 얹혀살게 되었다. - 중략 -

한편 조정에서는 만덕의 부친 응열(應悅) 공에게는 가의대부(嘉義大夫)를 증자(贈資)하고, 오빠 만석(萬石)에게는 만덕의 구휼사업을 도운 공로가 인정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내렸다. 또 조카 성집(聲集)도 만덕의 사업을 도왔으나 건강하지 못하여 정조 9년(1758)년 32세로 병사하였으므로 만덕은 그의 아들 시채(時采)에게 사업을 의탁하였다. - 중략 -

시채(時采)에게는 아들이 중백(鍾百), 종진(鍾晉), 종주(鍾周)가 있었으므로 막 내 종주(鍾周)로 하여금 만덕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 2) 소설

### (1) 「濟州妓 萬德」, 『名妓列傳』(정비석, 이우출판사, 1977)

- 정비석의 『名妓列傳』은 1977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1982년에 再版이 발행됐다. 정비석은 소설에서 김만덕전을 쓰기 위해 자료수집 차 제주도를 방문했던 과정을 밝히고 있다.
- 제주도를 방문했던 시기는 1976년 12월이다.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우 진OO에게 김만덕에 관한 자료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진OO에게서 한글로 번역된 「만덕전」과 〈만덕기념사업회〉의 「취지문」을 받았다고 했다.
- 이후 만덕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만덕기념사업회 재정담당 이사인 정OO가 소장하고 있던 귀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정비석이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에 진OO에게서 입수한 자료 내용은 밝히고 있으나, 취재여행에서 입수한 자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한 만덕기념사업회를 방문하고 묘지도 돌아봤음을 알 수 있으나 김만덕 후손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 따라서 정비석 소설에 등장하는 김만덕의 출생지(동북리)<sup>40)</sup>는 작가가 임의적

40) 구좌읍 동북리는 1600년대 초 봉수와 연대를 지키던 이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동북리는 오래 전부터 궂막 또는 골막이라 불렸는데, 이 마을의 포구인 궂막개(변막포) 주변에 형성된 마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2015)에 따르면 ‘동북의 옛 이름은 골막, 한자어로 변막리(邊幕里), 변막포(邊幕浦)로 불렸다. 원래 김녕현 관내의 해촌으로 뒷개(북촌리)에 속했다가 19세기 중후반부터 행정마을로 독립된다.’고 밝히고 있다.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구지도에는 過幕浦(변막포)로 표기되어 있고, 신지도와 「탐라지도병서」(1709)에는 過幕(변막) 또는 過幕浦(변막포)로 표기되어 있다. 오창명(2014)에서도 ‘조천진 동쪽 바닷가, 별방진 북서쪽 바닷가에 변막포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포

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

- 「濟州妓 萬德」(『名妓列傳』)에서 김만덕의 가족사를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2백20여 년 전인 영조(英祖) 중엽. 제주읍에서 동쪽으로 육십리가량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는 「동복(東福) 마을(現. 舊左面 東福里)」이라는 반농반어의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다. 동복 마을에 바야흐로 아침 햇살이 비쳐오기 시작하는 이른 봄 어느 날. 아침 햇살은 아직도 완전히 퍼져 있지 않았는데, 어느새 바다에서 해초(海草)를 한 망태 등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소녀가 하나 있었다. 나이는 7, 8세 가량 되었을까, 첫눈에 보아도 눈이 어글어글하게 빛나고, 용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였다. 소녀의 이름은 김만덕(金萬德). 이 마을에서 삼대째 살아오는 김응열(金應悅)이라는 시골 선비의 이남일녀(二男一女) 중의 고명딸이었다. - 중략 -

그녀가 열살 때에 김씨 문중에는 뜻하지 않았던 커다란 재앙이 닥쳐왔다. 부처님처럼 자애롭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화불단행(禍不單行)이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애통에 잠겨 있던 아버지마저 얼마 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세 남매는 줄지에 사고무척(四顧無戚)한 천애의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 중략 -

친척이라고는 외삼촌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 역시 세 명의 고아들을 도맡아 키우기에는 살림살이가 너무도 궁색하였다. 때마침 제주읍에서 월중선(月仲仙)이가 그 소식을 듣고 동복 마을을 찾아왔다. 만덕을 수양딸로 데려다가 기생질을 시키려고 찾아온 것이다.

외삼촌의 입장으로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다. 자라서는 기생이 되거나 말거나, 우선 하나라도 짐을 덜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열네살짜리 만석은 남의 집 머슴을 살게 하고, 외삼촌은 열두살짜리 만재만을 맡고, 열살짜리 만덕 소녀는 퇴기 월중선을 따라 제주읍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만덕은 몇 달을 두고 남편 될 남자를 물색하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청년을

---

구의 옛 이름 ‘긱막개(글막개)의 한자차용표기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한 사람 발견하였다. 동헌에 근무하는 고선흙(高善欽)이라는 통인이었다. 어느 날 고선흙의 집을 찾아가니, 때마침 고선흙은 집에 없고, 봉옥(奉玉), 봉실(奉實)의 두 딸아이만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 중략 -

만덕은 스무살이 넘어서야 기생 신세를 어렵스레 면하였고, 그 때부터는 고선흙과 더불어 한평생을 화락하게 살아가려고 결혼식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타고난 팔자는 도망을 칠 수가 없었던지, 결혼식을 앞두고 만덕에게는 뜻하지 못했던 커다란 불행이 닥쳐왔다. 고선흙이가 돌림병에 걸려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 중략 -

사실 만덕은 그로부터 몇 해 후에는 자기 손으로 키워오던 봉옥, 봉실 두 고아를 어엿하게 시집을 보냈고, - 중략 -

그로부터 1년 후에 만덕은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회갑을 계기로 친정 조카인 김종주(金鍾周)를 양자(養子)로 삼아서 사업채를 양자에게 물려주고, 자기 자신은 수도 생활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만덕이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 후에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만덕의 양아들인 김종주에게 「恩光衍世(은혜로은 빛은 기리 빛나리)」라는 현판(懸板)을 손수 써 주었다. 그 현판은 지금도 만덕할머니의 외손계(外孫系)인 백찬석(白燦錫)씨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능의 「김만덕전」에는 김균이 보관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2) 「김만덕의 자선」, 『濟州女人像』(양중해, 제주문화원, 1998)

■ 이 소설에서 김만덕 출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덕은 영조 15년(1739. 을미), 제주성(濟州城) 안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응열(金應悅)이었으니, 경주김씨의 집안이다. 오라버니 만석(萬碩)과 오라비 만재(萬才)가 있었으니, 2남 1녀 중의 가운데에서 자랐다.

먼저 아버지가 늙고 이어 어머니가 늙더니, 며칠 사이에 세 남매만 남겨 두고, 그의 부모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다. 만덕의 집에는 어린 자식들만 남겨 놓고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갔으니, 장사를 치를 방법도 없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이웃에서 어렵게 이 두 시신을 물어주었으니, 그 장사는 제대로 갖춘 장사가 되었을 리 없었다. 만덕 남매들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친척이라 해도 먼 친척은 아는 체 할 수가 없었다.

세 남매는 살길이 아드막한 가운데, 만석과 만재는 남의집 ‘도살이’로 들어가고, 만덕 혼자만 남게 되었다. - 중략 -

위로 오라버니, 아래로 동생이 모두 남의 집 ‘도살이’로 고용되어 나간 뒤, 혼자 남은 만덕으로서는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던 차에, 집 가까이 사는 기녀 한매로부터 양녀로 삼겠다는 말을 듣고는, 누구와 의논해 보지도 않고 한매의 집으로 옮겨 살았다. 기녀 한매의 수양딸이 되던 날부터 만덕의 의식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 3) 기타 문헌

#### (1) 『舊左邑誌』(夫英性, 泰和印刷社, 1986)

- 부영성이 쓴 『舊左邑誌』 제2절 동북리편에는 김만덕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글 말미에는 鄭飛石 名妓列傳 參考라고 적혀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침 식전에 海藻(食用, 肥料用)를 한지게 따와야 하는 골막(東福里)에서 金應悅의 二男一女 中 고명딸로 태어났다. 불행히도 9살 적에 兩父母의 死別로 外三寸宅에 寄託하게 되었으나 이도 如意치 않아서 무근성에 사는 退妓 月中仙을 따라 10살의 어린 나이로 肢籍에 오르는 身世가 된다. - 중략 -

양가의 전통을 이어받고자 남편을 구한다는 것이 봉옥, 복심 두 딸을 가진 高善欽이란 30代의 男性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鐵石 같이 믿었던 이 男子는 돌림병으로 죽게 되니 이것 또한 八字所關일까? 肢籍에서 벗어난 것은 多幸이나 親庭오라버니 亡夫의 딸을 먹여 살릴 生覺을 허니 앞이 캄캄하다.]

## (2) 『濟州史人名事典』(金榮洽, 濟州文化院, 2002)

- 『濟州史人名事典』에 서술된 김만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 영조 때의 여류자선가(慈善家). 본관은 경주, 구좌읍 동북리에서 김응열(金應悅)의 2남 1녀 중 고명딸로 태어났다. 9세 때에 사별, 외숙댁에 기탁되었으나 10세 때 제주성안 무근성에 살던 퇴기(退妓) 월중선(月中仙)에 의지하면서 기적(妓籍)에 일시 올랐다. 관기 생활을 청산하고 봉옥, 복실 두 딸을 데려 사는 고선흠(高善欽)을 만나 부부생활을 했으나 얼마 후 남편이 병사했다.]

## 4) 문학작품 분석 결과

- 이 연구에서는 김만덕의 출생지를 언급한 문학작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연대기순으로 나열하여 작품 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2〉 참조)
  - 김만덕의 출생지는 물론 가족관계와 신분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살펴보았다.
- 정비석과 부영성의 작품, 김찬흠의 『濟州史人名事典』에는 김만덕이 결혼을 앞두고 혼약한 남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남성의 자녀를 키웠다는 화소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 김태능과 양중해의 작품에는 김만덕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김봉옥의 작품에는 청혼이 있었으나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 김만덕 형제(3남매)의 거취를 결정하는 사람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 김태능은 이웃과 친척이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정비석과 부영성, 김찬흠은 외삼촌으로, 김봉옥은 백부로 표현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양중해의 경우 본인들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김만덕 가계 족보에 따르면 김만덕 부친에게는 4형제가 있었다. 당시 병사한 김만덕 부친이 막내이지만 백부 등이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봉옥은 백

부로 표현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김만덕의 출생지와 관련해서는 2곳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제주읍(제주성) 출생이고, 다른 하나는 동복리 출생이라는 것이다. 특히 동복리 출생의 근거는 정비석(1977)의 소설 「濟州妓 萬德」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부영성(1986)과 김찬흠(2002) 등에서 인용되었다.

〈표 2〉 김만덕 관련 작품 속 주요 특징

저자(발표연도)	출생지	3남매 거취	良女 복귀 후 결혼 약속
김태능(1971)	제주성 부근	이웃, 친척	없음
정비석(1977)	동복마을	외삼촌	고선흠
부영성(1986)	굴막(東福里)	외삼촌	고선흠
김봉옥(1989)	제주성내	백부	없음
양중해(1998)	제주성안	본인 결정	없음
김찬흠(2002)	동복마을	외숙	고선흠

- 김만덕 출생지에 대해서는 김태능, 김봉옥, 양중해가 출생지를 제주성내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정비석, 부영성, 김찬흠은 동복으로 다루었다(〈표 3〉 참조).
  - 부영성의 경우는 정비석의 작품을 인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동복 출생설은 정비석과 김찬흠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다.
- 김만덕 출생지와 관련해서 각 작품의 발표연도를 보면 제주성내에 대해 언급된 최초의 작품은 1971년(김태능)이며, 동복이 언급된 작품 발표 시기는 1977년(정비석)이다.
  - 작품 창작 시기를 보면 정비석의 작품(1977)을 부영성이 『舊左邑誌』(1986)에 그대로 반영하였고, 이어서 김찬흠이 『濟州史人名事典』(2002)에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정비석의 소설 「제주기 만덕」(『名妓列傳』)에서는 김응열이 3대째 동복에서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소설 속 김만덕이 태어난 마을인 동복에 대한 자료 기록은 소설과는 다른 내용으로 남아 있다. 김만덕의 조부와 증조부 시기에는 굴막 또는 변막(邊幕)으로 불리다가 동복이라는 마을명을 사용한 시기는 19세기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김만덕 출생을 전후한 18세기까지는 굴막 또는 변막(邊幕)으로 불렸다.
-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소설 간에 차이가 있다. 소설은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창작물이기 때문에 소설 집필 당시의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장성을 높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찬흠 역시 정비석 소설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석의 작품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 김만덕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나타난다. 양중해의 경우만 오라비니와 오라비가 있었으며, 2남 1녀 중 둘째로 설정하였다. 그 외 작가들은 3남매 가운데 막내 또는 외동딸로 설정하였다.
- 그런데 김응열(김만덕 부친)의 묘비문에는 김만덕은 3남매 가운데 둘째로 기록되어 있고, 이복형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문학작품에도 허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각 작품별로 줄거리와 화소, 출생 등의 서술 내용을 보면, 각각은 일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 김태능, 김봉옥, 양중해 등의 작품에서는 제주시내 출생, 기녀(妓女)가 공통 화소로 나온다. 정비석과 김찬흠의 작품에서는 김만덕이 고명딸이라는 내용과 출생지가 동복, 퇴기 월중선, 고선흠과의 만남이 동일한 화소로 나타난다.
-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김만덕 출생지, 부모 사망 후 3남매의 거취문제, 良女 복귀 후 결혼 약속, 가족관계 등에 대한 서술이 작품마다 차이가 있다.
- 정비석의 작품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소설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김만덕의 양자 관계로도 알 수 있다. 즉 정비석은 김만덕의 양자를 조카 김중주(실제로는 손자뻘임)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김만덕 묘비문에는 양손 김시채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소설과 역사 기록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해석해야 한다.

- 결국 대다수 사람들은 김만덕의 출생과 관련된 역사기록이 빈약한 관계로 소설에 등장하는 마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표 3〉 작품 속 김만덕 출생지와 가족관계

구분	저자	출생지	주요내용	출판연도	비고
전기문	김태능	제주성 부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라비 만석과 만재와 더불어 3남매는 의탁할 곳이 없음.</li> <li>· 한 기녀(妓女)가 자기집에 데려다가 잔 심부름도 시키면서 양육함.</li> <li>· 두 형제는 친척집이나 아니면 동리 사람 집에 목동이나 시동으로 고용됨.</li> <li>· 김정희가 은광연세(恩光衍世)를 김중주에게 써 줌. 이 편액은 김균씨가 보관하고 있음.</li> </ul>	1971	
	김봉옥	제주성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로는 만석, 만재 두 오빠가 있었음.</li> <li>· 만석은 백부의 도움으로 동네 부씨(夫氏)에게 장가듐. 만재는 백부 집에 의탁, 만덕은 한 기녀(妓女)의 집에 얹혀 살게 됨.</li> <li>· 종주(鍾周)가 만덕의 제사를 지내도록 함.</li> </ul>	1989	
소설	정비석	동북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마을에서 삼대째 살아오는 김응열(金應悅)이라는 시골 선비의 이남일녀(二男一女) 중의 고명딸임.</li> <li>· 열네살짜리 만석은 남의 집 머슴, 외삼촌은 열두살짜리 만재만을 맡고, 열살짜리 만덕 소녀는 퇴기 월중선을 따라 제주읍내로 들어옴.</li> <li>· 고선흠과 결혼식을 앞두고 고선흠이 사망함.</li> <li>· 조카 김중주(金鍾周)를 양자(養子)로 삼음.</li> </ul>	1977	

구분	저자	출생지	주요내용	출판연도	비고
	양중해	제주성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남 1녀 중 가운데임.</li> <li>· 만석과 만재는 남의 집 ‘도살이’를 함.</li> <li>· 기녀 한매의 수양딸임.</li> </ul>	1998	
기타	부영성	곶막(東福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三寸宅에 寄託하게 되었으나 이도如意치 않아서 무근성에 사는 退妓 月中仙을 따라 10살의 어린 나이로,</li> <li>· 高善欽이란 30代の 男性을 만나게 되고 그는 돌림병으로 사망함.</li> </ul>	1986	정비석 『명기열전』 참조하여 작성
	김찬흡	동북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은 경주, 구좌읍 동북리에서 김응열(金應悅)의 2남 1녀 중 고명딸로 태어남.</li> <li>· 봉옥, 복실 두 딸을 데려 사는 고선흠(高善欽)을 만나 부부생활을 했으나 얼마 후 남편이 병사함.</li> </ul>	2002	정비석 『명기열전』 내용과 동일

## Ⅲ. 김만덕 출생지 관련 묘비 현황 분석

### 1. 김만덕 가계 묘비

#### 1) 김응열



〈사진 2〉 전경



〈사진 3〉 원비

#### (1) 원비(原碑)

##### □ 특징

- 재질: 현무암
- 규격: 가로 33~37.5cm × 세로 99cm × 두께 8~9cm
- 건립시기: 18세기 후반
-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63
- 생몰년: 1721년(경종 1)~1758년(영조 34)
- 관계: 김만덕 부친

## □ 비문

### ● 전면

嘉義大夫 金公之墓

### ● 후면

1줄: 公諱應悅 生於康熙辛丑八月初八日 終於乾隆

2줄: 戊寅正月十二日 同年十月二十一日寅時 附葬于

3줄: 神山旨妻姜氏之墓左午作之原 而晉州姜氏 生

4줄: 於康熙丁卯五月十七日 終於乾隆辛未五月初三日 同

5줄: 年十月二十一日 葬于右原 生長子今碩 後娶耽羅

6줄: 高氏 生二男一女 次萬碩 次女萬德 次子萬才

## □ 역문

가의대부 김공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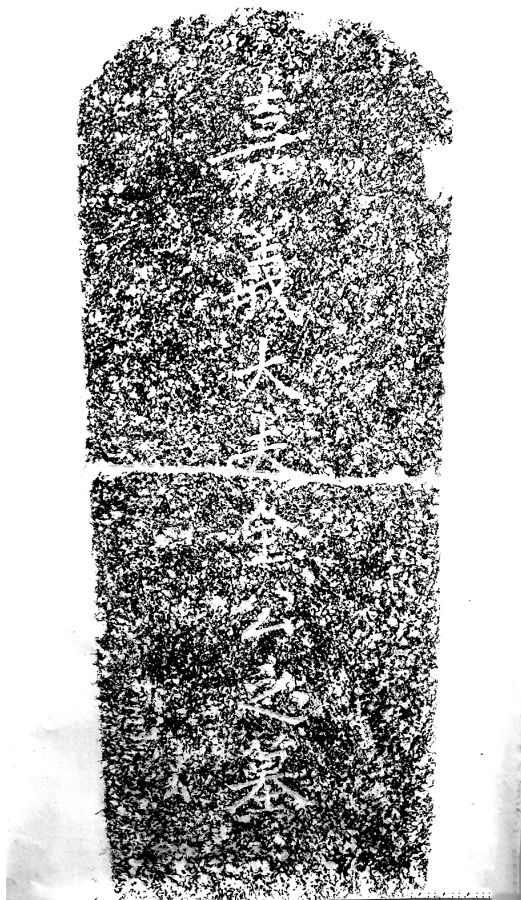
[공의 휘는 응열(應悅)이다. 강희 신축년(1721) 8월 초 8일에 태어나고 건륭 무인년(1758) 정월 12일에 돌아가서 같은 해 10월 21일 인시에 신산지(神山旨) 처 강씨의 묘 왼쪽 오작지원(午作之原)에 합장했다.

진주강씨(晉州姜氏)는 강희 정유년(1717) 5월 17일에 태어나고, 건륭 신미년(1751) 5월 초 3일에 돌아가서 같은 해 10월 21일 오른쪽 원(原)으로 장사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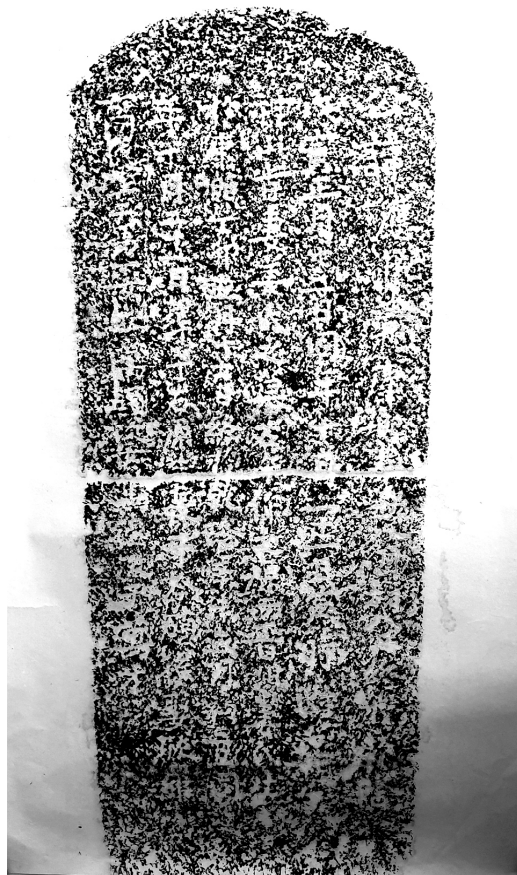
장남은 금석(今碩)인데, 뒤에 탐라고씨에게 장가 들어 2남 1녀를 낳았다.

다음은 만석(萬碩), 다음은 딸 만덕(萬德), 다음은 아들 만재(萬才)이다.]





〈사진 3〉 전면(탁본)



〈사진 4〉 후면(탁본)

(2) 개비(改碑)



〈사진 6〉 전면

□ 특징

- 재질: 조면암
- 규격: 가로 31.5~33.5cm × 세로 80cm × 두께 13~14cm
- 건립시기: 1972년
-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63

□ 비문

- 전면

嘉義大夫 金公應悅 貞夫人 耽羅高氏之墓

• 후면

1줄: 公姓金 諱應悅 本金海 入島始祖諱性淳之

2줄: 孫也 考諱永世 配耽羅高氏 生二男一女

3줄: 男萬碩萬才夭 孫聲集 女萬德道民有功者

4줄: 余不記

5줄: 公正月十二日卒 配六月三日卒

6줄: 墓在德泉경 어대岳下 덕밭山林入口 北

7줄: 向双封 配左

• 좌면

1줄: 西紀一九七二年壬子 八月一日

2줄: 八代孫才興才吉 謹豎

□ 역문

가의대부 김공 응열 정부인 탐라고씨지묘

[공은 성 김(金), 휘 응열(應悅), 본 김해(金海), 입도 시조 휘 성순(性淳)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휘 영세(永世)이다.

배는 탐라고씨로 2남 1녀를 낳았다.

아들 만석(萬碩), 만재(萬才)는 일찍 죽었고, 손자는 성집(聲集)이다.

딸 만덕(萬德)은 도민 유공자이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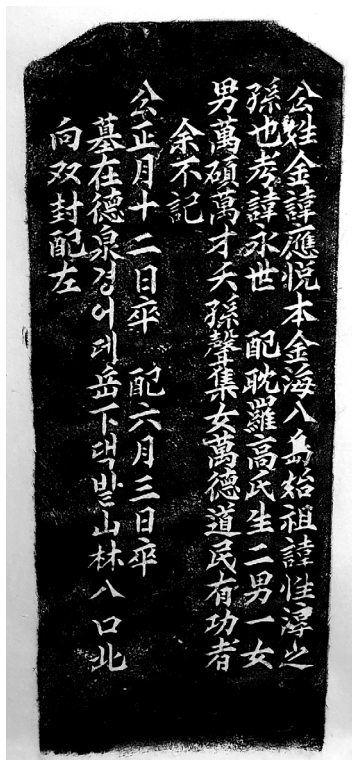
공은 정월 12일에 돌아갔고, 배는 6월 3일에 돌아갔다.

묘는 덕천(德泉) 지경 어대악 아래 덕밭 산림 입구 북향 쌍봉으로, 배는 왼쪽이다.

서기 1972년 임자 8월 1일 8대손 재흥 재길 삼가 세움.]



〈사진 6〉 전면(탁본)



〈사진 7〉 후면(탁본)



〈사진 8〉 좌면(탁본)

## 2) 김만석



〈사진 9〉 전면

### □ 특징

- 재질: 조면암
- 규격: 가로 33~40.5cm × 세로 78cm × 두께 10~11cm
- 건립시기: 19세기
-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63
- 생몰년<sup>41)</sup>: ?~1748년(영조 24)
- 관계: 김만덕의 오빠

## □ 비문

### • 전면

嘉善大夫 金萬碩之墓

### • 후면

1줄: 公金海人 生於英廟戊申九月二十日

2줄: 終於當宁戊辰十二月十六日 葬于廣

3줄: 壤三姓穴頂丙坐之原 同月二十七日也

4줄: 娶濟州夫氏 有一男一女 男曰聲集 并早

5줄: 世 又有二庶女 聲集有一男曰時采 時采

6줄: 有二男二女 長曰鍾伯 次曰鍾季 女并幼

### • 좌면

1줄: 移葬 西紀一九六四年四月二十六日

2줄: 御帶岳巽坐

3줄: 八代孫淵植 七代孫才興才吉才生

## □ 역문

가선대부 김만석지묘

[공은 김해인(金海人)이다. 영조 무신년(1728) 9월 20일에 태어나고, 같은 임금 무진년(1748) 12월 16일에 돌아가시니, 광양(廣壤) 삼성혈(三姓穴) 정(頂) 병좌지원(丙坐之原)에 장사 지내니, 같은 달 27일이다.

제주부씨에게 장가 들어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은 성집(聲集)이다. 모두 일찍 죽었다. 또 서녀 둘이 있다.

성집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니 시채(時采)이다.

41) 김만덕의 아버지 김응열과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비문에 새겨진 김만석의 생년 갑자(甲子)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생년을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단, 역문(譯文)은 비문에 새겨진 갑자에 따라 풀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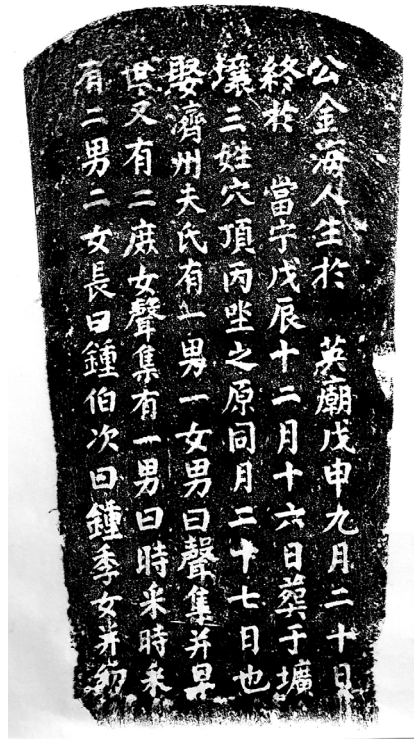
시체에 2남 2녀가 있으니, 장남은 종백(鍾伯), 다음은 종계(鍾季)이며, 딸은 모두 어리다.

서기 1964년 4월 26일 어대악(御帶岳) 손좌(巽坐)로 이장했다.

8대손 연식(淵植), 7대손 재흥(才興) 재길(才吉) 재생(才生)



〈사진 11〉 전면(탁본)



〈사진 12〉 후면(탁본)



〈사진 13〉 좌면(탁본)

### 3) 김만덕



〈사진 14〉 전면

#### ☐ 특징

- 재질: 조면암
- 규격: 가로 43~48cm × 세로 97cm × 두께 13~13.5cm
- 건립시기: 1812년
- 소재지: 제주시 건입동 397-4
- 생몰년: 1739년(영조 15)~1812년(순조 12)

#### ☐ 비문

- 전면



行首內醫女 金萬德之墓

• 후면

1줄: 金萬德 本金海 卽耽羅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 長

2줄: 而靡曼 托跡教坊 縮衣損食 貲產滋大 歲在正宗祖乙

3줄: 卯 島人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4줄: 上問何所欲 對曰願見京華金剛之勝而已 特命縣次續

5줄: 食 充內醫女 寵頒便蕃 因給舖馬 遍覽萬二千峰 及其

6줄: 還 卿大夫 皆贐章立傳 雖古賢媛 盖未嘗有 七旬顏髮 衍

7줄: 彿仙釋 重腫炯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8줄: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奉香火 亦復奚憾 生于元陵已

9줄: 未 終于當宁壬申十月廿二日 以翌月窆于並園旨甲

10줄: 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十一月二十一日

□ 역문

행수내의녀 김만덕지묘

[김만덕은 본관이 김해(金海)로, 곧 탐라 양가(良家)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영락(零落)하여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이 가난으로 고생하였으며, 자라는 어여뻐서 교방(敎坊)에 의탁하였는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줄여서 재산이 불어나 커졌다.

정조 을묘년(1795) 제주 섬사람들이 크게 굶주릴 때 능히 재산을 모아서 (육지에서) 곡식을 실어와 살린 목숨이 아주 많았다. 목사가 이를 어질게 여겨 조정에 보고하였다. 임금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답하기를, 서울과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를 보기 원할 뿐이라고 하였다.

특명을 내려 고을마다 차례로 음식을 잇게 하고, 내의녀(內醫女)에 충원하여 배운 은혜가 아주 많았으니, 이로 인하여 역말을 내어주어 1만 2천 봉우리를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경대부들 모두가 전별하는 글을 지어 전해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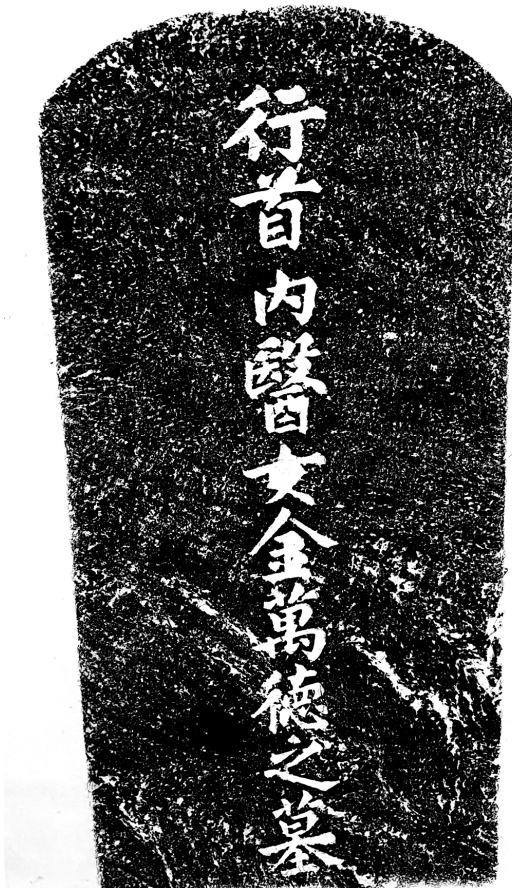
하였으니, 비록 옛날 현숙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칠순에도 얼굴빛과 머리털은 신선과 부처를 방불케 하였고, 중동(重腫)은 밝고 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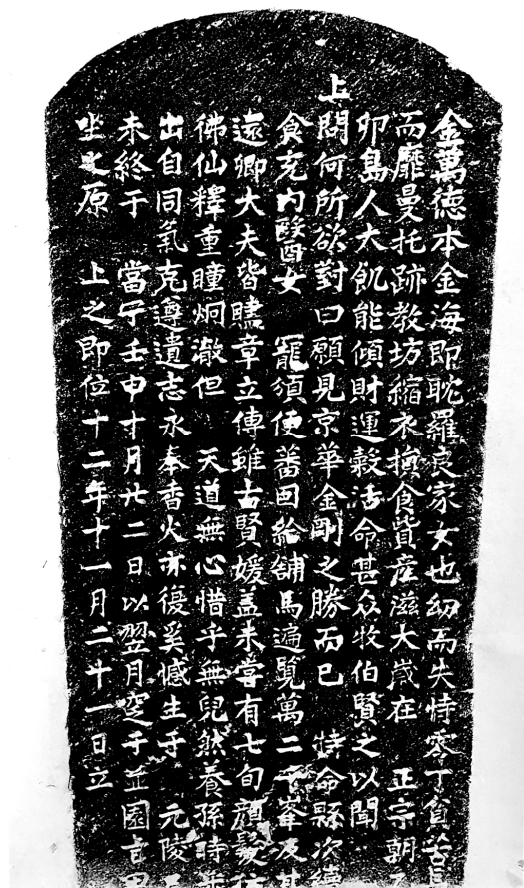
다만 하늘의 도가 무심하여 애석하게도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양손(養孫) 시채(時采)가 동기(同氣)로부터 나와 능히 유지(遺志)를 좇으면서 영원히 향화(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 또한 다시 무엇을 한할 것인가?

원릉 기미년(1739)에 태어나서 지금 임금님 임신년(1812) 10월 22일에 돌아왔다. 다음해 병원지(並園旨) 갑좌지원(甲坐之原)으로 장사지냈다.

임금님 즉위 12년(1812) 11월 21일]



〈사진 15〉 전면(탁본)



〈사진 16〉 후면(탁본)

## 2. 갑인년(1794) 의연자 묘비

- 제주도는 갑인년(1794)부터 을묘년(1795)까지 대 흉년 기간이었다. 이때 김만덕의 규휼 행적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한편 김만덕과 동시대에 제주 사람들을 위해 규휼 활동에 참여한 남성으로 고한조와 홍삼필이 있으며, 이들은 그 공적을 인정 받아 벼슬을 얻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된 문헌을 살펴보겠다.

### 1) 고한조



〈사진 17〉 전면

## □ 인물

고한조(또는 고한록)는 정조 때에 대정·정의현감, 성안 ‘묵은성[陳城洞]’에서 태어나 정조 13년(1789)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조 18년(1794) 갑인년 대흥년에 5백섬을 바쳐 기아자를 살렸으며, 특명으로 무신의 반열에 올랐다.

## □ 특징

- 재질: 조면암
- 규격: 가로 39~44cm × 세로 98.5cm × 두께 10.5~11cm
- 건립시기: 1895년
- 소재지: 제주시 아라일동 429
- 생몰년: 1762년(영조 38)~1822년(순조 22)

## □ 비문

- 전면

嘉善大夫 原州中軍 高公 貞夫人 全州李氏之墓

- 후면

1줄: 公諱漢祚 耽羅星主之後 祖諱泰成 考諱就善 妣全州

2줄: 李氏 公生壬午 登己酉武科 訓鍊僉正 旌義大靜縣監 江

3줄: 華 原州中軍 公內外官歷也 貞夫人全州李氏 男昌(彬)

4줄: 大靜縣監 孫性奎大靜縣監 曾孫斗鎔在鎔 皆萬戶五(衛)

5줄: 將 二女適洪州營將康綬 進士安永綏 玄孫以下 多不載

6줄: 初葬我羅里甲午 移奉于仁多羅已作原 與貞夫人合葬

7줄: 今豎碑者 曾孫在鎔也 崇禎後五乙未四月日

## □ 역문

[공은 휘 한조(漢祚), 탐라성주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휘 태성(泰成), 아버지

는 휘 취선(就善), 어머니는 전주이씨이다.

공은 임오년(1762)에 태어나고, 기유년(1789)에 무과 급제했다.

훈련원 첨정, 정의현감, 대정현감, 강화중군, 원주중군이 공의 내외 관직이다.

정부인은 전주이씨이다. 아들 창빈(昌彬)은 대정현감이다. 손자 성규(性奎)도 대정현감이다. 증손 두용(斗鎔), 재용(在鎔)은 모두 만호(萬戶)로 오위장이다.

딸 둘은 홍주영장 강연(康縑)에게, 진사 안영수(安永綏)에게 시집갔다.

현손 이하는 많아서 기록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라리(我羅里) 갑오(甲午)에 장사 지냈는데, 인다라(仁多羅) 사작원(巳作原)에 옮겨 모시면서 정부인과 합장했다.

지금 비석을 세우는 자는 증손 재용이다.

숭정 후 다섯 번째 을미년(1895) 4월 일]

## □ 고한조의 업적이 기록된 사료

### ①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5월 22일조

[제주에 진휼을 베풀었는데,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끝마쳤다.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의 굶주리는 백성이 총 6만1천4백53명으로 진휼곡은 2만2천1백82석이었다.】 목사 이철운(李喆運)의 장계를 이조·병조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진휼 정사가 완결되었으니 백성의 일이 매우 다행스럽다. 명월 만호(明月萬戶) 고한록(高漢祿)이 5백석을 자원 납부하여 진휼을 도왔으니, 이것이 어찌 섬 안의 잔약한 진장(鎭將)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극히 가상하다. 제주도 안에서 임기가 찬 수령 자리에 이 사람을 단망으로 임명하라.”라고 하였다.]

[濟州設賑 自去年十二月始設 至是畢賑 【濟州大靜旌義 總飢民六萬一千四百五十三口 賑穀二萬二千一百八十二石】 下牧使李喆運狀啓于吏兵曹曰 賑政告完 民事萬幸 明月萬戶高漢祿之願納五百石補賑 是豈海外殘鎭將所能爲者哉 極爲可嘉 本牧地方滿瓜守令單付]

## ② 『승정원일기』, 정조 17년(1793) 5월 22일조

[이조가 구전정사를 하여 정의현감으로 고한록을 단부(單付)하였다.]

[吏曹口傳政事 旌義縣監單高漢祿]

## ③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5월 11일조

[제주(濟州)에서 진휼을 행하였는데, 1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끝마쳤다.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의 기민(飢民) 725,329명에게 25,905석의 곡식을 들여 진휼하였다.】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장계를 올리기를, “〈상략〉 본주(本州) 사람으로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곡식을 무역해 진휼에 보탠 것이 무려 300석이나 되고,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00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 없습니다.”하였다. 〈중략〉 임금이 하교하기를, “〈상략〉 전 현감 고한록이 매번 사재(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특별히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했다가 이어 군수(郡守)의 경력을 쌓게 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濟州設賑自正月始設 至是畢賑 【濟州大靜旌義飢民七十二萬五千三百二十九口 賑穀二萬五千九百五石零】 牧使李禹鉉狀啓曰 … 本州人前縣監高漢祿貿穀補賑 至於三百石 將校洪三弼 幼學梁聖範願納穀物 各爲一百石 極爲可尙 … 教曰 … 前縣監高漢祿每每捐財 海外土俗之能知存愛 萬萬可尙 特差大靜縣監 仍用郡守履歷 ….]

## ④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6월 6일조

[제주에 기민 진휼을 실시하였다. 을묘년 10월에 진휼을 시작하여 이 해 4월에 끝마쳤다. 【세 고을의 기민 5만1천3백3명에, 소요된 곡식은 3만5천1백23석이었다.】 이 일을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계문하니, 제주 판관 조정일(趙敬日)은 논상(論賞)하고,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은 승품하여 서용하고, 정의현

감(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에게는 아마(兒馬)를 하사하고, 진휼을 보조한 전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섬 안의 두 고을 수령 중에서 한 곳에 임명하여 보내라고 명하였다.]

[濟州設賑 乙卯十月始賑 是年四月畢賑 【三邑飢民五萬一千三百三口 賑穀三萬五千五百二十三石零】 牧使柳師模以聞 命論賞濟州判官趙敬日 大靜縣監高漢祿陞敘旌義縣監洪相五兒馬賜給 補賑人前巡將洪三弼 島中兩邑守令中差送]

## 2) 홍삼필



〈사진 18〉 전면

## □ 인물

[홍삼필은 1794년(정조 20) 갑인년 흥년 당시 유학 양성범(梁聖範)과 같이 각각 양곡 100석을 희사, 조정에서 그 의연심을 칭찬하여 순장(巡將)으로 승차되었다. 이후 전 정의현감 고한조(高漢祚)가 당시 쌀 300석을 의연한 공로로 대정현감에 특차된 바 있었는데, 그 예에 의하여 고한조의 임기가 끝나자 대정현감에 제수되어, 1798년 2월에 도임하고 동년 12월 떠났다.]

## □ 특징

- 재질: 조면암
- 규격: 가로 46~50cm × 세로 108cm × 두께 14.5cm
- 건립시기: 19세기 초반
-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59-4
- 생몰년: 1738년(영조 14)~1822년(순조 22)

## □ 비문

- 전면

嘉善大夫 行 縣監 洪三弼之墓

- 후면

1줄: 公南陽人 考諱道長 英廟戊午生 性儉嗇 少

2줄: 貧窮 貿遷成家 正宗乙卯賑飢 戊午特授

3줄: 大靜縣監 當宁丁丑老職嘉善 配全州李穎

4줄: 武女 有一男三女 男泰漢有六子樂舜樂眞樂

5줄: 善樂憲樂綏樂莘 女適李景國徐完寶金錫祉

6줄: 壬午七月六日以疾卒 享年八十五 同年十一

7줄: 月二日 葬于二所場牛鎭岳東麓坤坐原



- 좌면

進士 吳霑 識

- 우면

1줄: 光緒三年丁丑四月十二日 改葬于

2줄: 下軸幕丁作原 孫在昱謹記

## □ 역문

[공은 남양인이다. 아버지의 휘는 도장(道長)이다. 영조 무오년(1738)에 태어났다. 성품이 검소하였다. 어려서 가난하였는데 무천(貿遷)<sup>42</sup>으로 성가(成家)하였다.

정조 을묘년(1795)에 주린 백성을 구휼하여 무오년(1798)에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순조 정축년(1817) 노직(老職) 가선(嘉善)이 되었다.

배는 전주 이영무(李穎武)의 딸이다. 1남 3녀를 두었다. 아들 태한(泰漢)은 6자 낙순(樂舜) 낙진(樂眞) 낙선(樂善) 낙헌(樂憲) 낙수(樂綏) 낙신(樂莘)을 두었다. 딸은 이경국(李景國), 서완보(徐完寶), 김석지(金錫祉)에게 시집갔다.

임오년(1822) 7월 6일 병으로 돌아갔다. 향년 85세이다. 같은 해 11월 2일 2소장 우진악(牛鎭岳) 동록 곤좌원(坤坐原)에 장사 지냈다.

진사 오점 씌

광서 3년 정축(1877) 4월 12일 하축막(下軸幕) 정작원(丁作原)으로 개장하였다. 손자 재욱(在昱)이 삼가 기록한다.]

## □ 홍삼필의 업적이 기록된 사료

### ①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5월 11일조

[제주(濟州)에서 진휼을 행하였는데, 1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끝마쳤

---

42) 무천(貿遷) : 물화(物貨)를 교역한다는 말이다.

다.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의 기민(飢民) 725,329명에게 25,905석의 곡식을 들여 진휼하였다.】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장계를 올리기를, “〈상략〉 본주(本州) 사람으로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곡식을 무역해 진휼에 보탠 것이 무려 300석이나 되고,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00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 없습니다.”하였다. 〈중략〉 임금이 하교하기를, “〈상략〉 전 현감 고한록이 매번 사재(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특별히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했다가 이어 군수(郡守)의 경력을 쌓게 하라. 홍삼필과 양성범이 100석을 자원해서 납부한 것은 육지에서 1,000포(包)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를 병조로 하여금 순장(巡將)으로 승진시켜 임명토록 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濟州設賑自正月始設 至是畢賑 【濟州大靜旌義飢民七十二萬五千三百二十九口 賑穀二萬五千九百五石零】 牧使李禹鉉狀啓曰 … 本州人前縣監高漢祿貿穀補賑 至於三百石 將校洪三弼 幼學梁聖範願納穀物 各爲一百石 極爲可尙 … 教曰 … 前縣監高漢祿每每捐財 海外土俗之能知存愛 萬萬可尙 特差大靜縣監 仍用郡守履歷 洪三弼梁聖範百石願納 可敵陸地之千包 竝令兵曹巡將陞差 ….]

## ②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6월 6일조

[제주에 기민 진휼을 실시하였다. 을묘년 10월에 진휼을 시작하여 이 해 4월에 끝마쳤다. 【세 고을의 기민 5만1천3백3명에, 소요된 곡식은 3만5천1백23석이었다.】 이 일을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계문하니, 제주 판관 조정일(趙敬日)은 논상(論賞)하고,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은 승품하여 서용하고, 정의현감(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에게는 아마(兒馬)를 하사하고, 진휼을 보조한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섬 안의 두 고을 수령 중에서 한 곳에 임명하여 보내라고 명하였다.】

[濟州設賑 乙卯十月始賑 是年四月畢賑 【三邑飢民五萬一千三百三口 賑穀三萬五

千五百二十三石零】牧使柳師模以聞 命論賞濟州判官趙敬日 大靜縣監高漢祿陞敍旌義縣監洪相五兒馬賜給 補賑人前巡將洪三弼 島中兩邑守令中差送]

### ③ 『일성록』, 정조 20년(1796) 6월 6일조

「신이 부임한 것이 4월 중순(中巡)으로 분급할 때였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진휼을 개시한 뒤로부터 올해 4월 중순 전까지 진곡(賑穀)을 분배하고 기민(饑民)을 뽑는 규칙은 전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인계한 진안(賑案)과 곡부(穀簿)를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였고, 4월 중순과 종순(終巡)은 신이 영운(領運)해 온 곡물을 가지고 이전의 식례(式例)에 따라 분수(分數)에 맞추어 마감(磨勘)하였습니다. 〈중략〉 원납(願納)한 주민(州民)으로 말하면,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몇 해에 걸쳐 진휼에 보탠 곡물의 수효가 많습니다. 그 뜻을 내어 출연(出捐)한 성의가 대단히 가상합니다. 〈하략〉]

[該牧使狀啓 以爲臣之到任 在於四月中巡分給之時 故自昨年十月開賑後 至今年四月中巡前 分排抄付之式 以前牧使李禹鉉所傳掌賑案穀簿一一較準 四月中終巡以臣領運穀 依前式例 準分磨勘 … 願納州民 前巡將洪三弼 比年補賑穀數夥然 其出義捐財之誠 極爲嘉尙 ….]

### □ 홍삼필 비문 찬서자(撰書者) - 오점(吳霑)

[1764년(영조 40)~1856년(철종 7). 조선 후기의 서예가로 본관은 화순(和順), 자는 시지(時之), 호는 청파(靑坡)이다. 출신지는 현 제주도 제주시이다. 부친은 오재권(吳載權)이다. 1786년(정조 10) 병오 식년시 생원 3등 3위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으나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서예에 전심하여 송설체(松雪體)를 중시하였다. 특히 금석서(金石書)에 정통하였다. 또한 문장이 뛰어나 공사문(公私文)을 많이 썼다. 그는 「연상루중수상량문(延祥樓重修上梁文)」, 「망경루개건상량문(望京樓改建上梁文)」등을 남겼다.]

### 3. 의녀(義女) 호칭 사례 묘비 - 홍윤애(洪允愛)

- 김만덕 관련 호칭으로 ‘의녀(義女)’, ‘의녀반수(醫女班首)’ 등이 쓰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제주도 인물 중에 ‘의녀’로 불린 사례를 살펴보겠다.



〈사진 19〉 전면

## □ 특징

- 재질: 조면암
- 규격: 가로 36.5~44cm × 세로 91cm × 두께 12.5cm
- 건립시기: 1811년
- 소재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 생몰년: ?~1781년(정조 5)

## □ 비문

- 전면

洪義女之墓

- 후면

1줄: 洪義女鄉吏處勳女 (正)宗丁酉 余以罪置耽羅 義女時出入余

2줄: 謫 辛丑 壬人欲搆余 以義女作餌 殺機墮突 血肉狼藉 義女曰 公

3줄: 之生 在我一死 既不服 又雉懸而殉 閏五之十五日也 後三十一

4줄: 年 余蒙恩 以防禦來鎮 茲方象設墓道 系以詩曰

5줄: 瘞玉埋香奄幾年 誰將爾怨訴蒼旻 黃泉路遽歸何賴 碧血藏深

6줄: 死亦緣 千古芳名蘅柱烈 一門高節弟兄賢 烏頭雙闕今難作 青

7줄: 草應生馬鬣前 濟州牧使兼全羅道防禦使趙貞喆書

- 좌면

1줄: 昭和十五年庚辰四月十五日 兄弟移墓 改合葬于今德境木啄旨庚作

2줄: 外孫通德郎朴奎八附左 住郭支

## □ 역문

홍의녀지묘

[홍 의녀는 향리 처훈의 딸이다. 정조 정유년(1777)에 내가 죄를 지어 탐라에

안치(安置) 되었을 때 의녀가 때때로 나의 적소(謫所)에 출입하였다.

신축년(1781)에 간사한 놈이 나를 엮어매려고(트집을 잡아 해치려고) 의녀를 미끼로 삼으니, 살기(殺機)가 덮쳐 혈육이 낭자하였다. (그때) 의녀가 (나에게) “공(公)이 사는 것은 이 한 몸 죽는 것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간사한 놈에게) 불복하였다. 또한 목을 매어 죽으니 윤 5월 15일이었다.

31년이 지난 후(1811) 내가 임금의 은혜를 입어 방어사로 제주에 왔다. 이에 묘소에 비를 세우고 이어 시를 지어 새긴다.

구슬 향기 묻힌 지 몇 년이나 지났는가  
누가 그대 원통함을 하늘에다 호소할까  
아득한 황천길 돌아가 누구를 의지하나  
깊이 감춰진 푸른 옥, 죽으면 또한 인연으로 맺어질까

영원한 세월에 아름다운 이름 족두리풀처럼 강렬하고  
한 집안에서 난 높은 정절은 아우 언니가 뛰어났으니  
정려를 지금 세우기 어렵지만  
푸른 풀은 무덤에 자라날지니

제주목사 겸 전라도방어사 조정철 쓰다

## □ 의녀 홍윤애의 호칭 사례 문헌자료

### ① 담수계(1954), 『증보탐라지』, 인물, 의녀(義女)

[홍윤애 : 제주읍(濟州邑) 사람이다. 정조 때 조정철(趙貞喆)이 본도에 유배 와서 살았는데 윤애가 정철의 인격을 우러러 사모하여 그 거소에 출입하였다. 당시의 목사·관관 등이 전부터 정철을 살해하려는 야심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기회로 하여 윤애를 온갖 형장(刑杖)으로 국문하였으나 윤애는 “아니다”고 변명하였다. 지독한 형벌 아래 형세는 어쩔 수 없었고 드디어 윤애는 절개를 지키며

죽고 말았다.

[濟州邑內人이라. 正祖朝에 趙貞喆이 本島에 謫居되었는데 允愛가 貞喆의 人格을 仰慕하고 그 居所에 出入하는지라. 當時 牧使判官 等이 從來 貞喆을 殺害하려는 野心이 有한지라. 此를 奇貨로 하여 允愛를 갖은 刑杖으로 鞠問하였으나 允愛는 그 不然함을 辨明하였다. 毒刑之下에 勢無奈何하고 드디어 雉懸而死하다.]

#### □ 홍윤애 비문 찬서자(撰書者) - 조정철(趙貞喆)

1751년(영조 27)~1831년(순조 31). 자(字)는 성경(成卿), 호(號)는 정헌(靜軒), 부친은 조영순이다. 1775년(영조 51) 문과에 급제하였다.

1777년(영조 53) 홍인한(洪麟漢), 홍지해(洪趾海), 윤양로(尹養老) 등이 중심이 된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후 추자도로 이배되었다가 1803년(순조 3) 8월 27년간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방면되었다. 8년 후인 1811년(순조 11) 6월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다음해 1812년(순조 12) 6월에 떠났다.

홍윤애 묘비문은 조정철이 제주목사 부임 당시 직접 작성했다.

## IV. 김만덕 가계도 분석

### 1.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 가계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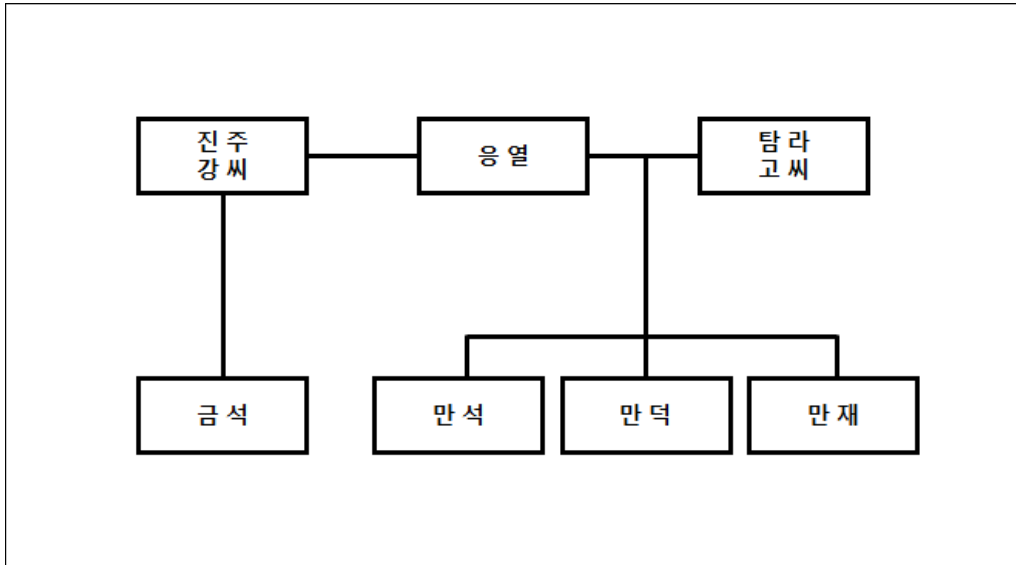
- 김만덕의 출생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가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적·법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도표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기호와 관계를 묘사하는 선으로 구성된 지도와 같은 것이다(이동순, 2004).
- 우리나라에서 가계도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족보가 처음 출현한 15세기부터 본격적인 확산의 시작은 17세기로 볼 수 있다(권기석, 2019). 따라서 김만덕 출생을 전후한 족보를 들여다봄으로써 출생지와 김만덕 사후 제사 및 묘지 관리 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1) 김응열 원비(原碑)에 나타난 가계도 현황

- 김응열의 무덤은 제주시 일도동에 있었고, 그 당시 세워진 묘비를 원비(原碑)라 한다. 이 묘비는 1972년 덕천리로 이묘할 당시에 그대로 옮겨가서 개비(改碑) 옆에 놓아두었다. 이 비석에 새겨진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가계도는 <그림 2>와 같다.
- 이 가계도를 통해 족보에 없는 기록이 확인된다. 김만덕 부친에게는 전처와 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만덕은 3남매 가운데 막내가 아니라 둘째였다는 사실이다.
- 이 부분은 김응열 묘비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3장 1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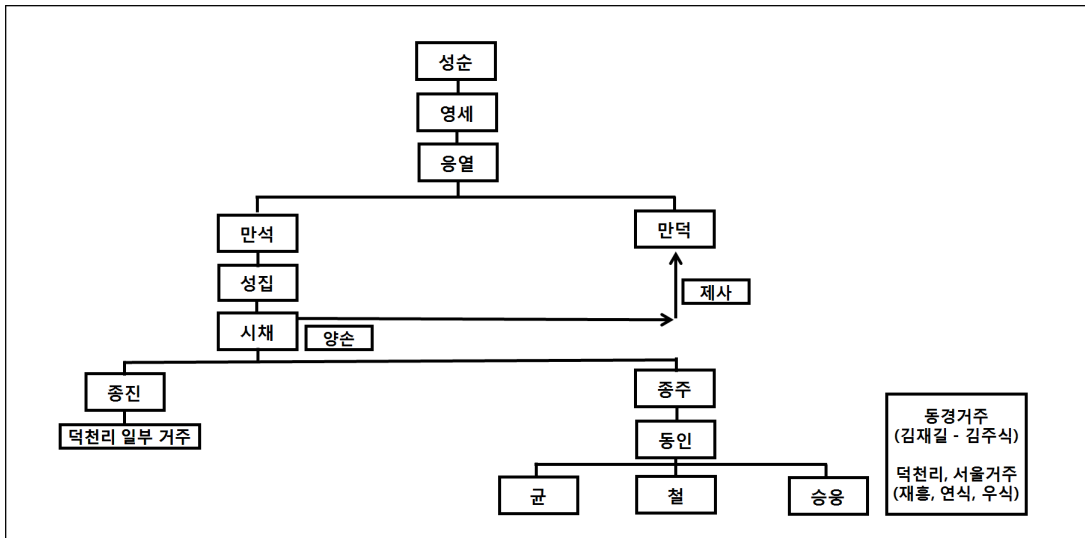
〈그림 2〉 김응열 원비(原碑)로 본 가계도



## 2) 문학작품에 나타난 김만덕 가계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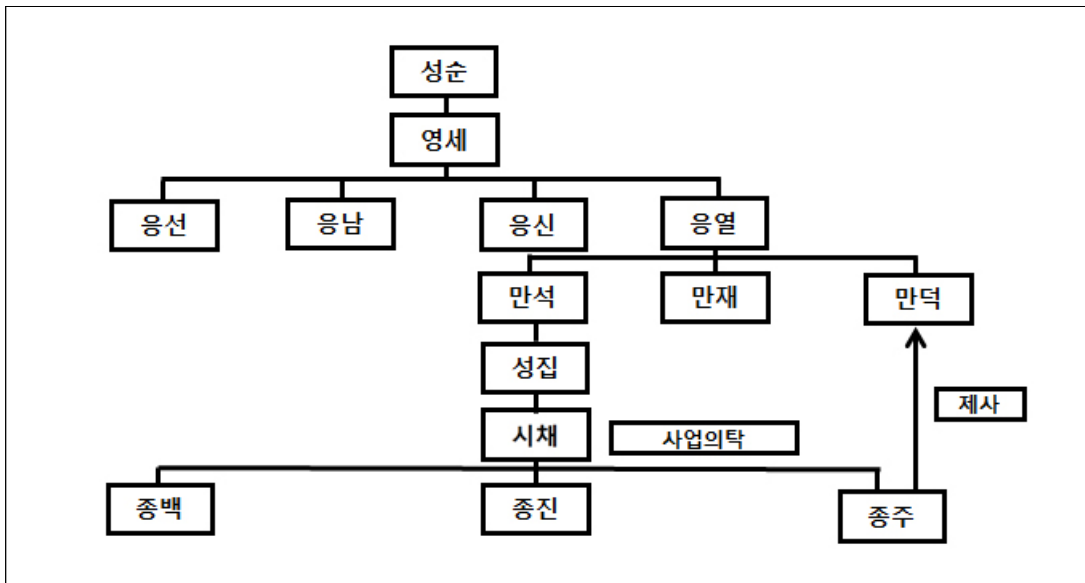
- 김태능의 「김만덕전」과 김봉옥의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 정비석의 「제주기만덕」에 나타난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3~5〉 참조).
- 김태능은 ‘김만덕 가계의 대략’이라는 절을 설정하여 가족관계를 서술하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 김태능은 만석과 만덕 형제만 있다고 보았으며, 만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 시체를 양손으로 삼은 것은 김만덕 묘비문과 같고, 종주에서 김균으로 가계가 이어지는 것은 족보와 동일하다.

〈그림 3〉 김태능의 「김만덕전」으로 본 김만덕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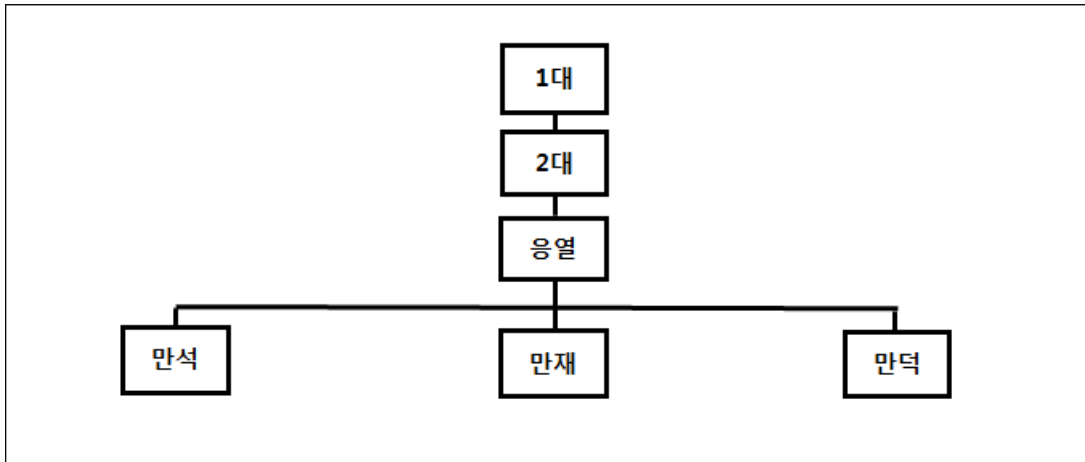
- 김봉옥은 김응열의 형제와 김만덕 형제와 후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족보와 동일하다.

〈그림 4〉 김봉옥의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으로 본 김만덕 가계도



- 정비석은 김응열이 3대임을 표현하면서 1대, 2대의 이름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김만덕 형제간 정도만 알 수 있다.

〈그림 5〉 정비석의 「濟州妓 萬德」으로 본 김만덕 가계도



### 3) 김만덕 가계도 분석 결과

- 김만덕 문중의 족보와 문학작품에 드러난 가계도를 비교해 보면 족보와 가장 유사한 가계도는 김태능과 김봉옥의 「김만덕전」이다. 이 두 작품의 가계도에서 가족관계는 선대에 대한 내용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후대에 관한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 김태능은 22세까지 언급한 반면, 김봉옥은 제사 봉행과 관련된 19세에서 끝내고 있다.
- 김태능의 경우 가장 최근까지의 친인척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작품 창작 이전에 직계 후손을 면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반면 정비석의 소설에서는 만덕까지만 기술되고 있으며, 이후 후세에 대한 기록은 엿볼 수 없다. 따라서 김만덕 후손에 대한 면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굳이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즉 작품 전개 과정에서 현재의 가족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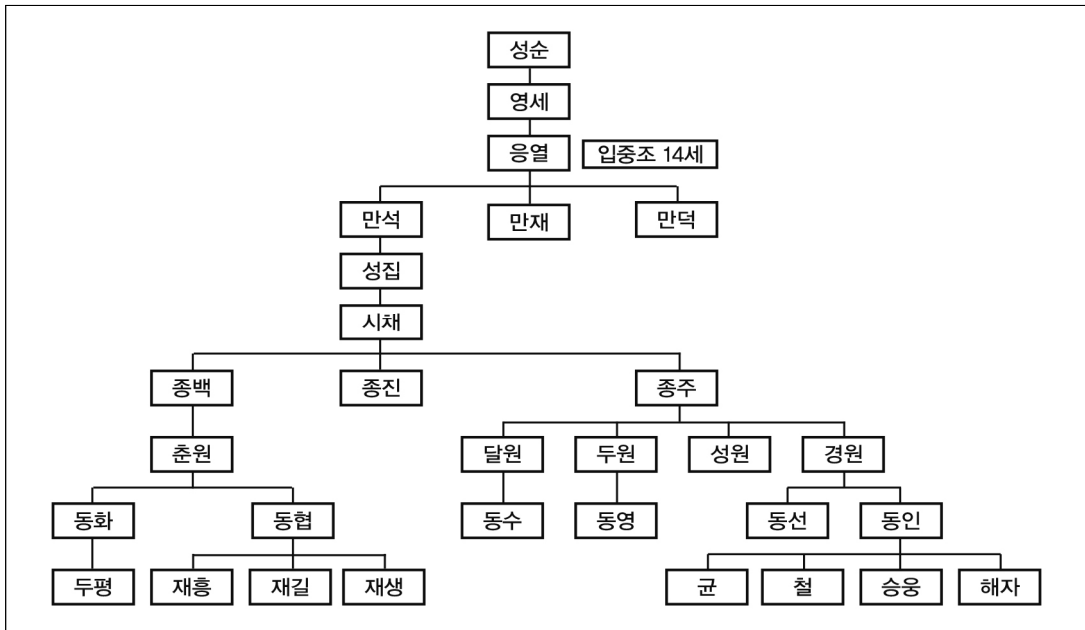
- 다만 김만덕의 묘비문에는 김만덕이 3남매의 둘째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다수 문학작품에서는 막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창작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 2. 김해김씨 좌정승공과 후찬계 족보 분석

- 김만덕 일가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가족관계, 묘의 위치, 자녀의 나이 등이다. 분석 대상 족보는 김해김씨 좌정승공과 후찬계보(金海金氏左政承公派厚瓚系譜)이다.
- 김만덕 일가 족보에 따르면 만덕 증조부의 옛 묘는 제주시 이도동 지경(濟州市 二徒洞 東山員 墓失傳)에 있었으나 실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부의 옛 묘도 실묘(墓失傳)되었고, 위치도 미상으로 적혀 있다. 김응열의 옛 묘는 제주시 일도동(一徒洞 九重員)에 있었으나 현재의 묘역인 덕천리 지경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김만덕의 오빠 김만석과 동생 김만재의 옛 묘는 모두 제주시 동광양 일대(만석 : 二徒洞 東廣壤, 만재 : 二徒洞 東廣壤)에 있었으나 지금의 덕천리 지경으로 옮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족보에는 만덕 부친은 1750년에 사망했으며, 큰오빠 만석은 1728년에 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만재의 출생연도는 기록에 없으며 만덕은 1739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 족보에 따르면 부친 사망 당시 큰오빠는 23세이고 만덕은 12세였다.
  - 김응열 원비에는 1758년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만덕은 20세이다.
  - 김만석 묘비를 보면 1728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친 김응열이 1721년생이므로 이는 비문 작성 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김만덕묘의 관리는 사라봉 묘역에 안장되기 이전까지는 김두평씨가 관리하였으며, 그의 사후(1946년)에는 아내인 한계월이 관리했다.

〈그림 6〉 족보로 본 김만덕 가계도



- 김만덕의 의례 주관자에 대해서는 김만덕 묘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 “다만 하늘의 도가 애석하게도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양손 시채가 동기로부터 나와 능히 유지를 좇으면서 영원히 향화(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 또한 무엇을 한할 것인가.”로 적혀 있다. 또한 ‘동기로부터 나와’라는 구절은 양자로 입적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김만덕의 묘비에 새겨진 ‘영원히 향화(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라는 구절은 그 당시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던 사후봉양<sup>43)</sup>의 의미로 해석할 수

43) 정궁식(200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선전기에는 제사의례를 망자에 대한 사후봉양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오래된 관행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여말선초 주자가례의 수용과 그에 따른 제사승계법제의 정비로 변화가 있었다. 즉 사후봉양에 가계 계승적 의미가 부과되었다. 가계 계승적 의미는 정치적 단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일반인의 삶

있다. 그렇지만 가족의 위계와 주요 사실을 기록하는 족보에서는 양손 시체가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 결국 족보에 나타난 김만덕 일가의 옛 묘는 만덕을 포함한 증조부까지는 제주 동지역(일도동, 이도동, 건입동) 인근에 있었다. 묘의 관리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최소한 증조부까지는 제주성 내외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김만덕 가계 후손 심층면담 결과

- 김만덕의 출생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만덕 종친회(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 후손들과 면담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심층면담 개요

- 일시 : 2020년 3월 24일, 4월 27일 각 1회씩 2회
- 면담자: 김균<sup>44)</sup>(1931년생), 김영호(1945년생), 김상수(1948년생), 김상철(1961년생), 김상돈(1962년생), 김상백(1968년생)

#### 2) 주요 내용

##### (1) 김만덕 출생지에 대한 단서

- 김만덕의 출생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묘지와 금석문, 족보 등이 있다. 김만덕 일가 족보에는 김응열(김만덕 부친)은 제주 입도<sup>45)</sup> 14세로 기록되어

---

에서는 사후봉양의 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고려시대까지는 家系繼承의 의미는 거의 없고香火를 받드는 死後奉養의 의미만 뚜렷하였다. 여말선초의 종법적 제사승계의 도입으로 제사는 단순히 사후에 조상을 봉양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家系繼承인 承祧의 의미가 더해졌다.

44) 김균은 〈은광연세〉 편역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김만덕기념사업회〉에 기증하였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개인 사정상 전화 인터뷰하였다.

45) 제주도는 섬지역이어서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정착한 최초의 조상을 입도조라 부른

있다. 김응열의 부친 김성순 묘지는 제주시 이도동에 있으며, 김응열 무덤은 동문 밖 동산원(제주시 일도동 구동원)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따라 덕천리로 이묘했다. 김만덕의 오빠인 김만석의 무덤은 동광양에 있었으며,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덕천리로 이묘했다.

- 제주시 이도동과 삼도동의 공동묘지는 옛 제주농업고등학교 자리이다.

- 원래 김응열과 그 후손들의 묘지는 제주시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아라동 등지에 있었다. 김상수의 조부(둘째)인 김재길은 일본에 거주했는데(1968년 경 도일), 1975년 경 제주도에 와서 조상묘를 찾아서 덕천리 공동묘지로 이묘하였다.

- 김재길은 조상들의 묘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김응열 후손 중에 구좌읍 덕천리로 거주지를 옮기게 이유는 두 가지로 전해 온다. 첫째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간(조천 거주자와 김응열 후손들)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따라 김춘원(김성순 기준 8세, 족보 기준 19세) 등이 덕천으로 이주하였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제주도에 민란이 있었는데, 그 난리를 피해서 김종백<sup>46)</sup>이 덕천리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 후에 김종백의 후손들이 덕천리에 거주하게 되었다.
- 김종백의 후손인 김동화 소유의 토지가 덕천리와 김녕리에 많았고, 그 일부가 덕천리 가족공동묘지로 조성되었다.
- 김춘원(김종백의 자)이 덕천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그 후손들은 덕천리가 생활권이 되었다. 1960년대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김응열, 김만석 등 선조들의 무덤을 구좌읍 덕천리 가족공동묘지(일명 대억밭)로 이묘하였다. 이후 김만덕 가계의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다. 입도조란 본관이 제주인 고·양·부 삼성 이외의 다른 성씨가 제주섬 이외의 지역 및 국가에서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하여 살며 후손(혈족)을 남기고 그들이 대대로 제주도에 거주하며 가문을 이루었을 때의 시조를 말한다(홍기표, 2018: 34~35).

46) 2020년 4월 김만덕 후손들의 인터뷰 결과 8세 김춘원 때에 덕천리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이는 김만덕 후손 중에 일부가 덕천리로 옮긴 것을 의미하며, 그 인연으로 덕천리에 가족공동묘지를 마련하였다.

- 김만덕 가게의 무덤 위치로 보아 김만덕의 출생지는 제주시 성안(일도리 일대)으로 봐도 무방하며, 거주지에서 장사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김시채의 아들은 김종백, 김종진, 김종주 등 3명인데 그 중에 김종주가 추사 김정희와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생활 중에 〈은광연세〉 편액을 써서 김종주에게 주었다. 이 편액은 김종주→김경원→김동인→김균으로 전해 내려왔다. 김균이 〈은광연세〉 편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김만덕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
- 김만덕 후손들과의 면담 결과 김만덕의 출생지가 제주시 성내(일도동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종백의 장남인 김춘원 자녀는 김동화와 김동협이다. 김동화의 장남 김두평이 김만덕 묘지를 관리했으며, 그의 손자인 김영호로 이어졌다.
  - 김동협의 후손으로 김상철, 김상돈, 김상수, 김상백 등이 있으며, 이들이 현재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의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 19〉 김응열 부부 구묘(구좌읍 덕천리 대역밭)





〈사진 20〉 김만석 구묘(구좌읍 덕천리 대역발 인근)

## (2) 김만덕묘의 이묘 당시 상황<sup>47)</sup>

- 김만덕묘를 이묘할 때 김만덕 후손도 참여하였는데 2020년 4월 면담 시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월(김두평의 아내)의 장손인 김영호(1945년생)와 고창월의 손자인 김상수(1948년생)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묘하는 날까지 사라봉에 있는 한 사찰에서 며칠간 기도를 드렸다.
-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김봉옥 편, 제주도, 1989)에는 김만덕묘의 이묘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묘 주변에 자동차정비공장(제주시 건입동 소재 안전공업사 터)이 들어서고 주택이 늘어나면서 김만덕묘를 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971년 10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사라봉과 산천단(제주시 아라동) 등지로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1976년 5월 〈총력안보 제주도협의회〉의 주관 하에 모충사를 건립함에 따라 김만덕묘 이장도 동

47) 김만덕묘 이묘 당시 상황과 묘지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는 문순덕·박찬식(2010)을 참고하였고, 2020년 4월 김만덕 후손들의 면담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의를 얻었다.

- 따라서 1977년 1월 3일 사라봉(제주시 건입동 소재)으로 이묘해서 묘탑을 세웠다. 김만덕묘탑 왼쪽에 유공자 기념탑 2기가 있다. 그 당시에 여성인 김만덕 묘탑을 중앙에 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위치에 세워졌다.
- 김봉옥이 『제주개발』(1977. 2·3월호)에 투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7년 1월 25일 〈김만덕 의인 기념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한계월(韓桂月, 80세)은 김만덕의 7대 후손 며느리로 김만덕의 묘를 벌초하고 관리해 왔다. 한계월은 김두평(金斗平: 구좌면 덕천리 거주)의 아내이다. 그 아들 김연식(金連植: 당시 60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계월은 맏손자인 김영호(金榮浩, 당시 32세; 구좌면 동김녕리 청수 마을)와 같이 살고 있다.
- 김상돈(1962년생)은 김만덕묘 이묘 당시 조모(고창월)와 함께 7일간 사찰에서 기도했다(사라봉에 있는 절). 그 당시 김만덕 후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고, 김만덕묘와 조상 묘는 친척들이 공동으로 관리했다.
- 김영호(1945년생)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만덕 무덤을 파 보니 관 속에는 진흙과 붉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개관은 느티나무이고, 관은 비자나무로 되어 있어서 관은 온전히 그대로 있었다. 다만 시신은 다 녹아서 아무 것도 없었다. 새 관을 짜서 관 속에 있던 흙을 담고, 이묘했다. 현재 탑 밑에는 관이 묻혀 있다.



〈사진 21〉 김만덕 구묘(김 군 제공)



〈사진 22〉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묘탑

### (3) 김만덕묘 관리 주체

- 김만덕은 김성집(김만석의 아들)의 장자 김시채를 양손으로 삼았고, 김종주로 김만덕의 유지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추사 김정희는 김종주에게 〈은광연세〉 편액을 써 주면서 그 가문을 칭송했다. 김만덕의 유업은 김종주에서 그 아들 김경원으로 이어지고, 김동인을 거쳐 장자인 김균에게서 〈은광연세〉가 빛을 발하였다.
  - 김종주는 철종부터 순조 때까지 제주 향리를 지냈다.
- 따라서 김만덕은 미혼으로 후사를 이은 자손은 없었으나 조카의 후손을 통해서 그 유지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후손들은 제주도를 떠나 있어서 김만덕묘지 관리는 방계 후손들이 담당하였다.
- 김균의 조부인 김경원묘는 김만덕묘와 같이 있었다. 김만덕묘를 사라봉 모충사로 이묘하게 되면서 김경원묘는 덕천으로 이묘했는데, 이 시기는 1976년 경이다.
- 김경원의 자손인 김동인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부산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묘지 관리를 하지 못했다. 즉 김동인이 제주를 떠나 있어서 외가인 백씨 문중에서 김만덕묘와 김경원의 묘를 관리하고 별초를 해 왔다.
- 이후 김두평(김춘원의 장손)이 김만덕묘를 관리하다가 그가 사망함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7년 1월 이묘할 당시까지는 김영호와 조모(한계월)가 김만덕묘지를 관리해 왔다.

## V. 결 론

### 1. 요약

- 이 연구는 김만덕(1739~1812) 관련 사료, 문학작품, 묘비문, 종친회 심층 면담 등을 토대로 김만덕 출생지를 조사·분석하여 일반인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 김만덕 가계 관련 공식 자료 부족으로 출생지, 신분, 활약상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김만덕 부친 김응열의 묘비문과 ‘김해김씨 좌정승공과 후찬계’ 족보 간에도 가족 구성원, 생물연대 등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1) 김만덕 출생지 관련 사료 분석 결과

- 김만덕 관련 문헌자료는 김만덕이 생존했던 당대(1739~1812)와 후대(1812년 사후)의 기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사적 가치와 신빙성이 있는 1차 사료에 국한해서 정리했다.
- 김만덕 관련 당대 사료에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정조실록(正朝實錄)』 등 관찬사료와 채제공(蔡濟恭)의 「만덕전(萬德傳)」, 규장각 초계문신(抄啟文臣)들의 각종 전기문이 있다.
- 김만덕 관련 사료 중 전기류가 많은 것은 정조 임금이 김만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정조는 특별히 규장각 관료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교지를 내려 김만덕의 전기문 작성을 지시했다.
- 김만덕 관련 후대 사료에는 현종대 제주목사 이원조의 「의기 만덕(義妓萬德)」,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의 저자 유재건의 「만덕(萬德)」, 저자 미상의 「의기 만덕(義妓萬德)」, 제주 유림 사학자 김석익의 「행수 김만덕(行首金萬德)」,

일제강점기 향토사학자 김두봉의 「女子 中 特異한 人物」, 『증보 탐라지』를 편찬한 담수계(淡水契)의 「김만덕(金萬德)」 등이 있다.

- 김만덕 관련 사료에는 김만덕을 ‘탐라 여인’, ‘탐라의 기녀(기생)’, ‘제주 기생(기녀)’, ‘고을의 기생’, ‘제주의 관비’, ‘탐라의 과부’, ‘탐라에 사는 양가집 딸’, ‘제주의 양가집 딸’이라고 하여, 김만덕의 출생지가 ‘탐라’, ‘제주’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김만덕 출생지 관련 문학작품 분석 결과

- 김만덕의 출생지를 언급한 문학작품은 여러 편이 있으나, 김만덕의 출생지가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거나 기존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기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김만덕 출생지와 관련해서는 2개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제주성내 출생이고, 다른 하나는 구좌읍 동북리 출생이라는 것이다. 특히 동북리 출생의 근거는 정비석의 소설 「濟州妓 萬德」(1977)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부영성(1986)과 김찬흠(2002) 등에서 인용되었다.
- 한편 『김만덕전』(김태능, 1971),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김봉옥, 1989), 「김만덕의 자선」, 『濟州女人像』(양중해, 1998) 등에서는 김만덕의 출생지가 제주성내로 설정되어 있다.
- 김만덕 출생지를 제주성내로 언급한 최초의 작품은 1971년(김태능)에 발표되었고, 동북리를 언급한 작품은 1977년(정비석)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김만덕의 출생지를 동북리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정비석 소설에 기초하고 있다.
- 한편 정비석은 작품 머리말에 김만덕 자료 수집 차 제주도를 방문하였으며, 지인들을 만난 과정은 상세히 기술한 반면 김만덕 후손들을 직접 취재했다는 기록은 없다. 결국 정비석 소설에 등장하는 김만덕의 출생지(동북리)는 작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
- 정비석 소설이 역사적 사실보다 허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북 마을에 바야흐로 아침 햇살이 비쳐오기 시작하는 이른 봄 어느 날.  
 소녀의 이름은 김만덕(金萬德). 이 마을에서 삼대째 살아오는 김응열(金應悅)  
 이라는 시골 선비의 이남일녀(二男一女) 중의 고명딸이었다.

〈중략〉

그녀는 회갑을 계기로 친정 조카인 김종주(金鍾周)를 양자(養子)로 삼아서 사업체를 양자에게 물려주고, 자기 자신은 수도 생활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 위 인용문에는 김응열(김만덕 부친)의 선조대부터 동북리에 거주한 것으로 나오는데, 김만덕 집안의 무덤 위치와 족보에는 제주성내로 되어 있다.
- 정비석의 작품을 역사적 사실보다는 소설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김만덕의 양자 관계로도 알 수 있다. 즉 정비석은 김만덕의 양자를 조카 김종주로 설정하였으나 김만덕 묘비문에는 양자가 양손 김시채로 기록되어 있다. 소설 상의 양자 김종주는 양손 김시채의 아들이다(〈그림 6〉 참조). 따라서 소설과 역사 기록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해석해야 한다.
- 또한 정비석은 소설에서 “만덕은 스무살이 넘어서야 기생 신세를 어렵스레 면하고…”라 표현하였다. 그런데 김응열 묘비문 내용과 비교해 보면 부친 사망(1758) 당시 김만덕은 20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결국 김만덕의 출생지에 대한 혼선은 사료와 문학작품(전기문, 소설)을 사실과 허구의 구분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역사적 사실과 소설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므로, 소설 속의 공간적 배경인 동북리를 현실적으로 김만덕의 출생지로 보기는 어렵다.
- 한편 부영성이 『舊左邑誌』에서 김만덕의 출생지를 구좌읍 동북리로 기술한 것은 정비석의 소설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독자들은 해석에 유념해야 한다. 김찬흡의 자료 역시 정비석 소설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김만덕 출생 관련 공식 자료의 부재로 일부 일반인들은 소설에 기록된 마을을 출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김만덕 가계도 분석 결과

#### (1) 김응열 원비(原碑)에 나타난 가계도 검토

- 김응열의 원비는 제주시 일도동에 있었고, 그 당시 세워진 묘비를 원비(구 묘비)라 한다. 이 묘비는 1972년 구좌읍 덕천리로 이묘할 당시에 그대로 옮겨가서 개비(改碑) 옆에 놓아 두었다.
  - 김응열 원비와 개비, 족보의 기록 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표 4〉 참조).
- 묘비문에 기록된 가계도를 통해 족보에 없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김만덕 부친에게는 전처와 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삼남매 가운데 막내가 아니라 둘째였다는 사실이다(〈그림 2〉 참조).
  - 김응열 전처는 진주강씨이고 장자로 금석이 있다. 전처 사망 후 탐라고씨와 결혼하여 2남 1녀(만석, 만덕, 만재)를 두었다.
  - 반면, 족보에는 진주강씨와 금석의 존재는 없고, 만덕은 막내로 되어 있다.
- 김만덕의 묘비문을 보면 김만덕이 3남매의 둘째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다수 문학작품에서는 막내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작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 족보 분석 결과

- 김만덕 일가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가족관계, 묘의 위치, 자녀의 나이 등이다. 분석 대상 족보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보(「金海金氏左政承公派厚瓚系譜」)이다.
- 김만덕 일가 족보에 따르면 만덕 증조부의 옛 묘는 이도동 지경(濟州市 二徒洞 東山貝 墓失傳)에 있었으나 실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부의 옛 묘는 실묘(墓失傳)되었고, 위치도 미상으로 적혀 있다. 부친의 옛 묘는 일도동(一徒洞 九重貝)에 있었으나 현재의 묘역인 덕천리 지경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김만덕의 오빠 김만석과 동생 김만재의 옛 묘는 모두 동광양 일대(만석: 二徒洞 東廣壤, 만재: 二徒洞 東廣壤)에 있었으나 지금의 덕천리 지경으로 옮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결국 족보에 나타난 김만덕 일가의 옛 묘는 만덕을 포함한 증조부까지는 제주시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묘의 관리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최소한 증조부까지는 제주성 내외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 김만덕 가게 후손 면담 결과

- 김만덕의 출생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만덕 종친회(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 후손들과 면담한 결과 희미하나마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김만덕의 출생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묘지와 묘비문이 있다. 김만덕 일가 족보에는 김응열(김만덕 부친)은 제주 입도 14세로 기록되어 있다.
- 김응열의 부친 김성순묘는 제주시 이도동에 있었고, 김응열묘는 동문 밖 동산원(제주시 일도동 구동원)에 있었고, 김만석묘는 동광양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따라 덕천리로 이묘했다.
- 김응열 후손 중에 구좌읍 덕천리로 거주지를 옮긴 이유는 두 가지로 전해온다. 첫째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간(조천 거주자와 김응열 후손들)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따라 김춘원 등이 덕천으로 이주하였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제주도에 민란이 있었는데, 그 난리를 피해서 김종백이 덕천리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 후에 김종백의 후손들이 덕천리에 거주하게 되었다.
- 8세(김성순 기준이고, 족보 기준은 19세임)인 김춘원(김종백의 자)이 덕천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그 후손들은 덕천리가 생활권이 되었다. 1960년대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김응열, 김만석 등 선조들의 무덤을 구좌읍 덕천리 소재 가족공동묘지(일명 대역밭)로 이묘하였다. 이후 김만덕 가게의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따라서 김만덕 당대 사료와 후대 사료, 후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김만덕의 출생지는 제주성내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동안 사실의 기록보다는 전기 문에 근거한 김만덕 생애사를 사실로 받아들인 경향이 강하다.
- 결국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후대에 또는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방법 또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도록 구성된다. 김만덕 관련 문학작품도 마찬가지다.
- 김만덕 생애가 조선 영·정조 때의 제주 출신 자선가를 넘어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간상으로 조명되기 위해서는 김만덕 출생지를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한정하기보다는 제주라는 큰 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역사와 허구를 확인하는 작업은 엄격해야 한다. 사료를 잘못 해석하거나 창작물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두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 5) 김만덕 출생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방향

-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료에는 김만덕 출생지가 제주와 탐라로 되어 있다. 묘비문과 족보를 보면 김만덕 가족묘의 위치가 제주시 동지역(일도동, 이도동, 건입동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학작품에는 제주성안과 구좌읍 동복리로 나온다.
- 지금까지 문학작품의 내용이 일부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는 등 김만덕 출생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 따라서 김만덕은 실존 인물이고 사료와 금석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주성안을 출생지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 김만덕 관련 기록물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5〉 참조)

〈표 4〉 김만덕 가게 기록물의 주요 특징

인물	묘비문 내용	족보 내용	비고
김응열	<p>■ 원비 기록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몰년: 1721~1758</li> <li>· 건립시기: 18세기 후반</li> <li>· 배우자: 진주강씨</li> <li>· 자녀: 3남 1녀 (금석, 만석, 만덕, 만재)</li> <li>· 묘지 위치: 제주시 일도동</li> </ul> <p>■ 개비 기록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립시기: 1972년</li> <li>· 배우자: 탐라고씨</li> <li>· 자녀: 2남 1녀 (만석, 만덕, 만재)</li> <li>· 이묘 위치: 구좌읍 덕천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일: 1750년 1월 12일</li> <li>· 배우자: 제주고씨</li> <li>· 자녀: 2남 1녀 (만석, 만재, 만덕)</li> <li>· 묘지 위치: 제주시 일도동</li> <li>· 이묘 위치: 구좌읍 덕천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응열 사망년도는 비문과 족보에 차이가 있음.</li> <li>· 원비에는 배우자 진주강씨와 장자 금석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비에는 없음</li> <li>· 김만덕은 비문에는 둘째로, 족보에는 셋째로 기록됨.</li> </ul>
진주강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몰년: 1717~1751</li> <li>· 묘지 위치: 김응열과 동일</li> <li>· 묘비: 없음</li> <li>· 자녀: 금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족보에 기록되지 않음</li> </ul>	
탐라고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응열 개비에 반영</li> <li>· 생몰년: 없음</li> <li>· 자녀: 2남 1녀 (만석, 만덕, 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고씨</li> <li>· 사망일: 1750년 6월 3일</li> <li>· 묘지 위치: 김응열 좌측 북향(제주시 일도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족보에는 김응열과 탐라고씨 사망연도가 1750년으로 기록됨.</li> </ul>
김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몰년: 1728~1748</li> <li>· 원무덤 위치 : 제주시 이도동 삼성혈 근처</li> <li>· 묘비 건립시기: 19세기</li> <li>· 이묘시기: 1964년</li> <li>· 이묘장소: 구좌읍 덕천리</li> <li>· 배우자: 제주부씨</li> <li>· 자녀: 1남 1녀(서녀 2)</li> <li>· 자: 성집</li> <li>· 손: 시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몰년: 1728년 9월 2일 ~ 1748년 12월 16일</li> <li>· 묘지 위치: 이도동 동광양</li> <li>· 이묘 위치: 구좌읍 덕천리</li> <li>· 배우자: 제주부씨</li> <li>· 자: 성집</li> <li>· 손: 시채</li> </ul>	

인물	묘비문 내용	족보 내용	비고
김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몰년: 1739~1812</li> <li>· 건립시기: 1812</li> <li>· 묘지: 건입동 ㄱ으니믄루</li> <li>· 이묘시기: 1977</li> <li>· 이묘장소: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li> <li>· 양손: 시채</li> <li>· 미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몰년: 1739~1812</li> <li>· 묘지 위치: 건입동 ㄱ으니믄루</li> <li>· 이묘시기: 1977</li> <li>· 이묘장소: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li> </ul>	
김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석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일: 2월 4일 배우자 윤씨 사망일 : 5월 5일</li> <li>· 묘지 위치 : 제주시 이도동 동광양</li> </ul>	

〈표 5〉 문학작품에 나타난 김만덕 가계의 주요 특징

작품명	저자/ 발표연도	가족관계-김만덕 기준	출생지	비고
김만덕전	김태능/1971	· 형제: 2남 1녀 중 막내 · 미혼 · 부친: 김응열 · 조상: 성순-영세-응열	· 제주성 부근	· 족보와 동일
제주기 만덕	정비석/1977	· 형제: 2남 1녀 중 막내 · 부친: 김응열 · 조상: 1대-2대-응열 · 남편: 고선흙 (의붓딸 2명) · 부모 사망 당시 나이: 만석 14세, 만재 12세, 만덕 10세	· 구좌읍 동복리	· 묘비문, 족보와 다름 · 부영성(1986), 김찬흙(2002): 정비석 소설과 동일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	김봉옥/1989	· 형제: 2남 1녀 중 막내 · 부친: 김응열 · 조상: 성순-영세-응열 · 미혼	· 제주성내	· 족보와 동일
김만덕의 자선	양중해/1998	· 형제: 2남 1녀 중 둘째 · 부친: 김응열 · 부친 사망 당시 나이: 12세 · 미혼	· 제주성안	· 형제: 묘비문과 동일 · 그 외: 족보와 동일

## 2. 시사점

### 1) 김만덕 관련 문헌자료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기념관이 주도적으로 김만덕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브화 하여야 한다.
- 이에 조선 후기 김만덕 생존시기의 국가정책과 제주도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 발굴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한문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 자료 구축과 병행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할 주체가 분명하게 지정되어야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2) 김만덕 출생지 관련 정보 정정 및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김만덕 관련 다양한 정보의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 또한 기록에 근거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홍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 김만덕 자료관의 기능을 부여한 플랫폼 역할 필요

- 현재 김만덕기념관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탁기관으로 독자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다.
- 김만덕 관련 모든 자료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김만덕 자료관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김만덕 자료관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 기관에 자료 수집과 구축,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김만덕 연구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자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 17년(1793) 5월 22일조, 정조 20년(1796) 11월 24일조 · 25일조 · 28일조.
- 『일성록(日省錄)』, 정조 20년(1796) 6월 6일조 · 11월 24일조 · 25일조.
-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17년(1793) 5월 22일조, 정조 19년(1795) 5월 11일조, 정조 20년(1796) 6월 6일조 · 11월 25일조.
- 김두봉(1936), 「女子 中 特異한 人物」,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
- 김석익(1915), 「행수 김만덕(行首金萬德)」, 『탐라기년(耽羅紀年)』 권3.
- 김희락,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奉敎製進萬德傳)」, 『고식(故寔)』
- 담수계(1954), 「김만덕(金萬德)」, 홍순만 외 역(2005), 『역주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 심노승, 「계섬전(桂織傳)」, 『효전산고(孝田散稿)』, 권7.
- 유재건, 「만덕(萬德)」,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 이가환, 「만덕을 탐라로 보내니 돌아갔다(送萬德歸耽羅)」, 『금대시문초(錦帶詩文鈔)』.
- 이면승, 「만덕전(萬德傳)」, 『감은편(感恩編)』, 권3.
- 이원조(1841), 「의기만덕(義妓萬德)」,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권2.
- 이재채, 「만덕전(萬德傳)」, 『오원집(五園集)』.
- 이희발, 「만덕전(萬德傳)」,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 권8.
- 정약용, 「중동변(重瞳辨)」,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2.
- 정약용,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題耽羅妓生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 저자 미상(1902), 「의기만덕(義妓萬德)」, 『탐라지(耽羅誌)』, 일본동경대학 소장본, 권1.
- 조수삼, 「만덕(萬德)」, 『추재집(秋齋集)』, 권7.
- 조정철 저(1824), 김익수 역(2006),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제주문화원.
- 채제공, 「만덕전(萬德傳)」, 『번암집(樊巖集)』, 권55.

## 2. 단행본 및 논문

- 김만덕기념사업회(2007), 『김만덕자료총서 I: 恩光衍世』.
- 김만덕기념사업회(2008), 『김만덕자료총서 II』.
- 김봉옥 편(1989),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 제주도.
- 김찬흠(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 김태능(1971),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편.
- 김태능(1982), 「의녀 김만덕전」,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 문순덕·박찬식(2010), 『추모 2002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 박찬식(2004),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보고서』, 김만덕기념사업회.
- 부영성(1986),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 양중해(1998),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 오창명(2014),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 이동순(2004), 「구약시대 족장들의 가계도 분석을 통한 목회상담 연구; 보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금식(2001), 「조선전기 朱子家禮의 수용과 祭祀承繼 관념」, 『역사민속학』 제12호.
- 정비석(1977), 「제주기 만덕」, 『명기열전』, 이우출판사.
- 제주특별자치도(2015),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 (제주시)』.
- 홍기표(2018),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濟州島研究』 제49집, 제주학회.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문순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석윤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박찬식	전 제주학연구센터장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

##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

---

발행일 || 2020년 7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 김만덕기념사업회 · 김만덕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TEL. (064) 759-6090  
홈페이지: [www.mandukmuseum.or.kr](http://www.mandukmuseum.or.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